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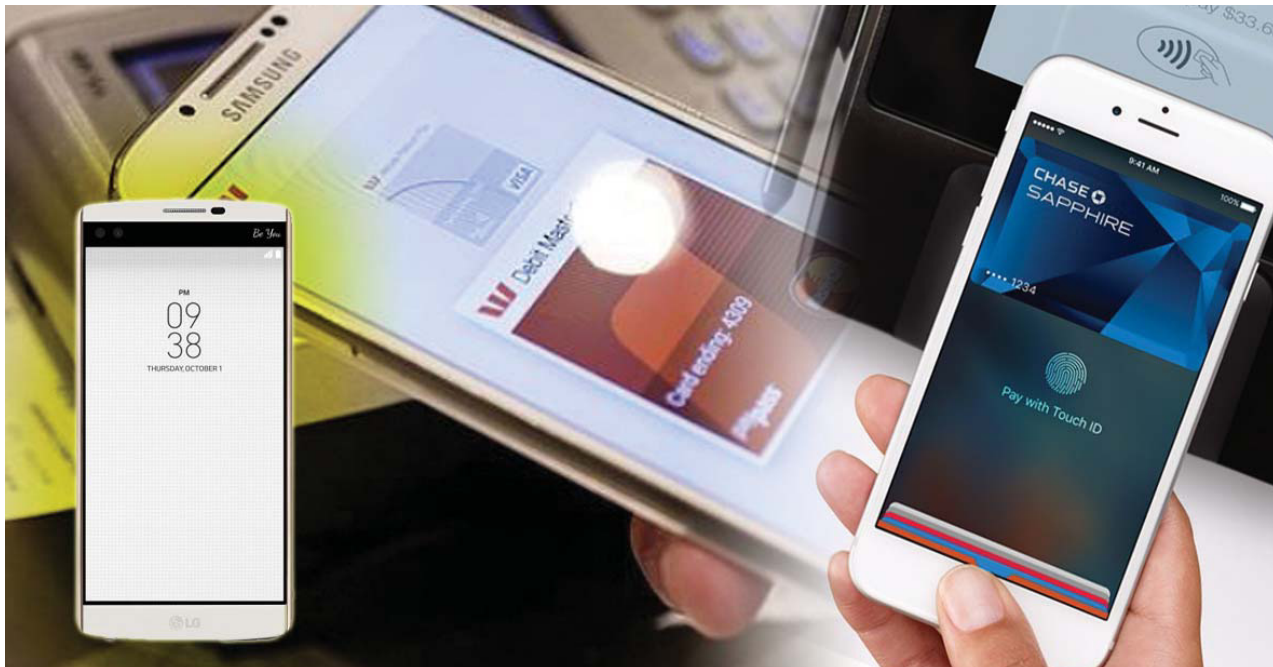
메트로 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제3319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13일>

코스피 2019.05 (-2.58)

코스닥 672.82 (-0.14)

금리(국고채 3년) 1.65 (-0.03)

환율(원·달러) 1149.50 (+5.50)

LG전자가 'G-PAY'로 한국과 미국에 상표출원을 하면서 삼성전자와 애플 등 글로벌 ICT기업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모바일 결제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사진은 왼쪽부터 LG V10, 삼성페이·애플페이 시연.

모바일 결제 '페이전쟁'… 큰 장 들어선다

삼성페이에 LG 도전장

삼성전자가 삼성페이로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LG전자도 이르면 다음달 'G-PAY(가제)'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경쟁 체제에 돌입한다.

LG전자는 지난달 'G-PAY'를 한국과 미국에 상표출원했다. 삼성전자와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간에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모바일 결제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앞서 6~7월에는 한국 특허청에 'G-PAY'를 포함해 'L-PAY', 'LG-PAY' 등 7~8가지 상표를 등록했다.

13일 LG전자 관계자는 "연내 LG전자가 자체 개발한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사용 편의성과 범용성, 뛰어난 보안성을 장점으로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V10' 출시 기자간담회에서 김종훈 LG전자 상품기획그룹장은 "LG전자도 결제 서비스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해당 서비스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미국 시장 진출에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진출 보다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국내 신용카드사와 결제대행(PG)사 등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국내 금융사와는 올해 상반기부터 접촉해왔다. 비씨카드를 비롯해 일부 카드사와 모바일결제시장 정보를 교류하며 경쟁사 결제 플랫폼 분석 등을 병행했다.

삼성전자의 삼성페이에 이어 후발 주자인 LG전자가 모바일 결제 서비스를 내놓으며 국내 시장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것으로 봐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삼성페이 신드롬
1개월 만에 누적결제 351억 돌파
국내 모바일 결제 독보적 점유율

LG 'G-PAY'로 도전장
韓·美서 상표출원… 연내 공개
교통·충전기능 장착 범용성 집중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 결제시장 규모는 2013년 1분기 1조1270억원에서 2015년 2분기 5조7200억원으로 2년여 만에 5배 이상 커졌다. 실제 삼성페이는 출시 1개월 만인 9월 20일 전체 결제 수 150만건과 누적결제액 351억원을 돌파했다.

국내 결제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독보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LG전자는 범용성과 보안성을 강화해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LG전자는 NFC와 IC칩을 이용해 모바일 결제를 지원하는 만큼 기존에 출시된 G4나 V10 등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현재 출시된 삼성전자의 삼성페이는 주유소와 신세계 계열사, 교통카드 결제가 안되지만 'G-PAY'는 이들 업체에서도 서비스할 예정이다.

삼성페이는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MST(마그네틱보안전송기술)와 NFC 기능을 모두 적용했다. 때문에 삼성전자는 최근 곤혹스런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삼성페이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자회사 루프페이가 올해 3월 해킹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삼성페이 서비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루프페이 해킹을 시도한 중국 해킹업체의 표적은 삼성페이의 '마그네틱보안전송' 기술로 추측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삼성페이 운영 시스템은 루프페이의 내부 네트워크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다"며 "삼성페이 시스템과 고객 정보는 안전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소식을 접한 현대카드는 최근 밴사에 삼성페이 전표 수거비용 수수료를 청구하지 말라고 통보해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반면 LG전자는 보안성을 높이기 위해 NFC 기술을 포함한 유심(USIM) 기반 결제 시스템을 지원한다. LG전자 관계자는 "기존 NFC 보다 진일보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보안과 편의성 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LG전자가 기존 모바일 결제를 넘어 교통카드나 충전식 결제 기능까지 장착해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범용성을 확장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바일 업계에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삼성페이로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 구글, LG전자의 합류로 내년 상반기 '페이 전쟁'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훈민정음 상주본 소장자 보상금커녕 옥살이할수도

문화재 은닉땐 징역형 가능

국보급 문화재인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놓고 고서적 수집가가 100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한 것과 관련,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지정문화재를 은닉할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 있어 국가의 강제 환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13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현재 상주본을 가지고 있는 배모씨가 본인만 아는 곳에 이를 숨기고 "감정가 1조원의 10%인 1000억원을 주면 헌납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보상금으로 1억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가가 이를 지급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사실상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다할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문화재청이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받고 이를 전제로 배씨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문제는 간단치 않다.

실제로 검찰이 한차례 가택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상주본은 찾지 못했다. 또한 형사 조치를 해도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다. 3년 징역형에 불과한데다 형을 살고 나올 경우 정부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법원 판결 등에 따르면 상주본은 2008년 한 방송을 통해 처음 세상에 드러났다. 배씨가 자신의 집을 수리하는 도중 상주본을 발견했다며 제보를 한 것. 당시 전문가들은 상주본을 국보 70호인 훈민정음 간송본 이상의 가치를 가졌다고 판단했다. 그러던 중 골동품상인 조씨가 나타나 자신의 가게에서 배씨가 다른 고서적을 사면서 상주본을 몰래 끼워 넣어 훔쳐갔다고 절도죄로 고소하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법원은 배씨를 절도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상주본을 조씨에게 돌려주라고 했지만 현재까지 배씨는 상주본을 내놓고 있지 않다.

/연미란 기자 actor@

Uprising 'Luna', A smartphone produced by mobile network operators. Smartphone makers must stay alert.

'루나'의 반란, 통신사가 만든 스마트폰 인기… 제조사 긴장하라

Samsung and LG, the number 1 and 2 smartphone manufacturers of the industry, are becoming anxious about the low priced smartphone 'Luna' which is produced by the collaboration of SK Telecom, TG &Co. and Foxconn.

According to the smartphone industry, TG & Co took charge of development and design and Foxconn, the Taiwanese company, took charge of the production. The product is only sold by SKT.

Luna is becoming very popular due to its refined design, premium specifications and affordable price.

Luna is the first unibody metal smartphone among android phones that are released in local market.

The device features a 5.5-inch Full HD display which has a resemblance to Apple's iPhone 6 plus. This is the reason why smartphone users say that the device features OS that Korean are familiar with and similar design to iPhone.

This phone with high specs retailed for only 449,900 Won. Besides, the actual price of the device was even reduced to 93,000 Won after SKT started supporting the consumers with 310,000 Won of grant money. Moreover, its commercial that one of the most popular member of girl's band Sulhyun is in contributes to increasing the sales. Luna's average sales per day is 2000 devices which means that sixty thousand devices are being sold every month.

SK텔레콤과 TG앤컴퍼니, 폭스콘이 합작해 만든 중저가폰 '루나'의 돌풍으로 국내 1, 2위 휴대폰 제조업체 삼성·LG전자가 긴장하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TG앤컴퍼니가 개발과 디자인을 맡고 대만 제조사 폭스콘이 만들어 SK텔레콤을 통해서 단독 판매되고 있는 루나는 세련된 메탈 디자인에 프리미엄급 성능을 갖추고도 가격 거품은 쏙 뺀 스마트폰으로 호평받고 있다.

루나는 국내 출시 안드로이드폰 중 처음으로 메탈 유니바디를 적용했다. 아이폰6 플러스와 같은 크기인 5.5인치에 풀HD(초고화질) 디스플레이를 갖췄다. 국내 이용자들에게 익숙한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아이폰 디자인을 입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고성능을 갖추고도 출고가는 중저가 스마트폰 수준인 44만9900원이다. 게다가 SK텔레콤이 출시 첫날부터 31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실구매가는 9만3000원대까지 떨어졌다. 더불어 인기 아이돌 가수 설현이 모델로 나선 TV 광고 역시 화제를 모으며 판매 열풍에 힘을 보탰다. 현재 루나의 일평균 판매량은 2000여대로, 한달로 환산해보면 6만대 가량이 지속 판매되고 있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정치·사회

▲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 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에 대해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부친인 고 박정희 대통령도 43년전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한 바 있다.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한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 획정위는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회에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거리로 나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으나, 같은 장소에서 맞불집회를 연 보수단체 회원들이 욕설을 하며 거칠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 **교육부**는 13일 "교육감들이 언급한 대안교과서가 개발되면 관련법령을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면서 "관련 규정을 보면 한국사 교과서와 유사한 명칭으로 교육과정과 내용이 동일하면 사용이 안 되고 다만 보충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유신을 찬양하는 교과서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김관정 부장검사)는 13일 오후 **주진우 시사인 기자**를 불러 2012년 당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 정부가 복지재정 누수를 막고자 **복지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1인 연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 헌법재판소가 오는 12월 **'김영란법'**의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을 열기로했다.

마스크 쓴 관광객들 1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마스크를 쓴 관광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중 마지막으로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았던 환자에게서 다시 메르스 양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사라진 줄 알았던 메르스 확산 우려가 다시 생겨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삼성전자가 삼성페이로 국내 모바일 결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LG전자도 이르면 다음달 'G-PAY(가제)'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경쟁체제에 돌입한다.

▲ **삼성전자**가 자체 설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 AP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을 경우 삼성전자 반도체는 물론 스마트폰 사업에도 날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 **이동통신 3사**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 실적이 호전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배치되는 결과다.

▲ 14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가 롯데그룹의 지주회사격인 롯데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광윤사**의 주주총회를 소집한 가운데 주총 결과에 따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광윤사 주총의 안건은 두 가지로 첫째는 신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 둘째는 신규 이사선임이다. 신 대표가 가진 광윤사 지분은 50.0%로 모두 의결권이 있는 지분이다.

▲ 산은금융지주 초대 회장을 지낸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이 롯데가 경영권 분쟁에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손을 잡고 나서고 있어 그의 행보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삼성카드가 중소기업 영역으로 여겨져 온 **채권추심업**에 진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그간 대기업의 신용정보업 진출을 불허해왔지만 최근 금융규제 완화 기조를 보이고 있어 인허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보험계약유지율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계약을 살릴 수 있는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국제

▲ 미국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두고 한 국계 하버드대생인 조지프 최와 설전을 벌였다. 트럼프 후보는 당황한 듯 같은 말을 반복하는 모습이었다.

▲ 벨기에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맥주회사** 안호이저-부시 인베브와 2위 업체인 영국 사브밀러가 사실상 합병 협상을 타결지음에 따라 맥주시장에 '공룡기업' 출현을 눈앞에 두게 됐다.

▲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에서 주로 발생해온 바이러스 감염병인 **뎅기열**이 중국 남부 지역에서도 자주 발생, 토착화돼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배당 '거북이걸음'… 사내유보 '토끼뜀'

한국기업 배당성향 세계 최하위권

배당성향 17.5%… 51개국 중 50위

사내유보금은 7년 만에 158.6% 늘어

기업의 배당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서도 한국 기업의 배당은 세계에서 가장 인색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제전문통신 <블룸버그>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한국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평균 17.456%로, 집계 대상 51개국(유로존 포함) 가운데 50위를 기록했다. 한국보다 배당성향이 낮은 나라는 아일랜드(14.618%)뿐이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가운데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배당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1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배당수익률을 비교해도 한국은 최하위권이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한국 기업의 배당수익률은 1.304%로 51개국 가운데 3번째로 낮았다. 배당수익률이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아르헨티나(0.929%), 아일랜드(0.802%) 2개국 뿐이다. 반면 체코(73.363%)는 유일하게 배당성향 70%를 넘어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호주(69.930%), 핀란드(67.600%), 뉴질랜드(66.024%), 포르투갈(61.468%), 영국(61.322%)이 2~6위를 차지했다. 네덜란드(60.468%)와 스페인(56.256%), 이탈리아(52.555%), 프랑스(49.078%) 등 유럽 국가들의 배당성향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49.867%), 대만(49.084%), 싱가포르(49.032%), 인도네시아(38.823%), 홍콩(37.490%)의 배당성향도 30%를 넘었다. 중국(30.699%)과 일본(27.596%)의 배당성향 역시 한국보다 높았다.

시가총액 1위인 미국 상장사들의 배당성향은 35.572%로 집계됐다.

한국의 배당성향은 최근 소폭 상승하긴 했다. 한국의 배당성향은 2년 전 13.599%에서 작년 15.331%로 상승한데 이어 또다시 2%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 소폭이나마 오른 것은 정부가 기업환류소득세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배당확대를 유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상승속도가 거북이걸음인데다 아직 세계 수준과의 격차가 크다. 반면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토끼처럼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성장성 둔화와 불확실성 증가로 배당 정책을 보수적으로 잡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배당 대신 유보금 축적을 기업들이 선호하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지난 7년간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 1835개사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8년 326조원에서 지난해 845조원으로 158.6% 늘었다.

이 때문에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를 억제하고 주주배당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차기태 기자 folium@metroseoul.co.kr

캣맘 사망사건 계기… 유기동물 관심 급증

'길거리동물 연구가' 터너박사에게 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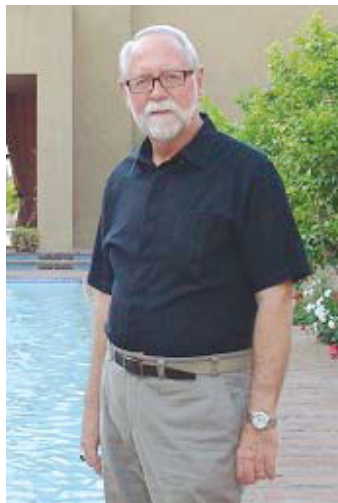
"학교서 동물 윤리적 책임 가르쳐야"

지난 8일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캣맘' 사망사건으로 온라인이 떠들썩하다. 길고양이를 위해 집을 지어주다 누군가가 떨어뜨린 벽돌에 맞아 숨졌으니 누리꾼들이 분개할 만한 일이다. 경찰은 '캣맘'으로 불리는 박모(55·여)씨에 원한이 있거나 길고양이에 대해 적개감을 가진 사람의 소행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누리꾼들은 길고양이에 대한 적개심을 가진 사람의 소행으로 보는 쪽이 우세하다.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다. 유기동물 학대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사람을 죽일 정도의 적개심으로 발전했다는 결론인 까닭이다.

사실 한국과는 달리 길거리 동물에 대한 적개심은 다른 나라에서는 낯설지 않은 일이다. 인간과 동물 간 상호작용 연구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데니스 터너(사진) 박사를 만난 적이 있다. 터너 박사는 여러 나라에서 끔찍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한다. 그는 '세계 동물 보호 협회'(WSPA)에 12년간 있으면서 중동·아시아·유럽·남미의 12개국에서 길거리동물 문제와 그 해법을 연구했다.

그가 인도 남부의 첸나이에 있을 때 목격한 일이다. 첸나이 주민들은 길거리의 개들에게 적대감을 가졌다. 개들에게 고함을 치고 때려서 쫓아내거나 돌을 던지는 것은 일도 아니었다. 독극물을 먹여 죽이기까지 했다. 개들도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공격했다. 그가 다른 나라로 떠났다 다시 돌아왔을 때 개들에 대한 적대감은 사라졌다. 개들도 마찬가지였다. 주민들은 개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먹이고 개들도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왔다. 광견병이 문제였다고 한다. 광견병을 두려워한 주민들이 개를 적대시한 게 모든 일의 원인이었다. 대대적인 광견병 백신 접종을 실시하자 주민과 개들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터너 박사는 설명했다.

터너 박사는 한국과 가까운 동아시아에서도 길거리동물에 대한 적개심을 봤다고 한다. 대만에서 목격한 장면은 끔찍했다고 한다. 자세한 설명을 듣지는 못했지만 터너 박사에 따르면 대만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리고 비슷한 일이 선진국인 유럽에서도 일어난다고 했다.

해법은 단순하지 않다고 한다. 각 나라의 사회 상황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까닭이다. 인도 첸나이는 광견병이 원인이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다른 원인이 있을 거라는 이야기다. 다만 원론적인 해법은 있었다. 터너 박사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물에 대한 윤리적 책임감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집에서 기르는 동물이야 부모가 교육하면 되지만 길거리동물은 학교 교육이 정답이라는 말이었다. 그가 말하는 윤리 교육이란 단순히 동물을 사랑하자는 식이 아니다. 그는 "다른 생명에 대한 존중, 동물은 사람과는 다른 요구(need)가 있다는 점, 동물도 생존권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일본처럼 개에게 사람처럼 옷을 입히거나 선글라스를 씌우는 것 역시 '오답'이라는 지적도 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 데니스 터너 (Dennis Turner)

데니스 터너 박사는 1948년 미국에서 태어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공중보건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5년부터 2011년까지 스위스 취리히 대학 동물행동학과 교수로 있으면서 동물매개치료 분야를 개척했다. 이 분야 최고 권위자로 평가받고 있다. 1991년 스위스 '응용 동물 심리행동학 연구협회'(IEAP/IET)를 창설해 회장을 맡고 있고, 1995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 사람·동물 상호작용 연구기관 연합'(IAHAIO) 회장을 역임했다. 12년간 WSPA에 있으면서 과학자문패널 이사를 맡기도 했다. 일본의 아자부 대학에서 10여년 넘게 동물매개치료 코스를 맡아 학자들을 양성하기도 했다.

訪美길 오른 朴 대통령 "역사교육 정쟁대상 안돼"

"민족사관 정립·국제정세 대비"
수석비서관 회의서 강조
국정역사교과서 당위성 밝혀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에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서울공항에서 환송나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방문을 위해 출국하기 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에 대해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또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도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발표 석달여 전 전국교육자대회를 열어 같은 내용의 연설을 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7·4남북공동성명 석달 뒤 유신을 선포했고, 다시 8개월이 지나 국정교과서 전환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오후 출국을 3시간 앞두고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제 교육부에서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올바른 역사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바르게 인식하고 올바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자라나도록 가르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세계의 지평은 날로 넓어지고 있고 세계가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동북아와 그 주변의 지형변화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역사관과 자긍심을 심어주는 노력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정교과서 비판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나타내며 강행 의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역사교육은 결코 정쟁이나 이념대립에 의해서 국민을 가르고 학생들을 나누어서는 안 된다"거나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치권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분열을 일으키기 보다는 올바른 역사교육 정상화를 이뤄서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서강대에 재학 중이던 1972년 3월 24일 부친인 박 전 대통령은 대구 경북체육관에서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전국교육자대회를 연 바 있다. 국무위원들과 국회 교육관련 의원들, 시도지사들과 교육감은 물론이고 전국의 대학총장, 대학교수, 초·중·고등학교장 등 8000여명이 모인 자리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치사에서 교육의 목표에 대해 "자립경제와 자주국방의 기틀 위에서 민족주체사상에 입각한 새로운 민족사관을 정립하려는 것은 사상의 파행성으로부터 용약(좋아 펄쩍 뜀) 탈피하려는 정신적인 국적 확인 운동이요, 조국통일에 대비한 민족주체세력을 형성해 나가는 우리 모두의 애국 운동"이라고 말했다.

또 "주체적 민족사관의 확립이야말로 주변 정세변화 속에서도 동요없이 우리 민족의 전통과 국가의 자주성을 떳떳이 지키고 민족주체사상을 확립하는 것을 뜻하며 국력배양을 위한 자주·자립·자위의 3대 목표를 추진하는 기본"이라며 "지금은 국가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국가관에 입각한 교육을 지향해야 하며 우리 교육의 국적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했다.

당시 국제정세는 미국과 구소련 간 냉전체제가 갑작스런 데탕트를 맞이하던 시기였다. 박 전 대통령은 예상치 못한 국제정세의 변화로 위기감을 느꼈고, 이 같은 위기감이 전국교육자대회 발언에 고스란히 묻어났다.

43년이 지나 현재 동북아는 중국발 패권전쟁이 진행 중이다. 중국은 지난달 3일 항일 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해 미국에 맞서는 군사대국의 면모를 과시했다. 열병식에 유일하게 참석한 친미진영 지도자인 박 대통령을 극히 예우, 미국 워싱턴에서 나도는 한국의 '중국경도론'을 더욱 부채질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북한을 홀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잠시였다. 이달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보내 냉랭했던 북중 관계 복원에 나섰다. 관영매체를 통해서는 "태평양에서 오는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라며 "북한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실제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침묵시키는 영향력을 발휘했다.

박 대통령으로서는 갑작스런 정세 변화에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박 대통령은 당초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맞설 생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국 직전 박 대통령이 국정교과서 문제를 얘기하면서 '통일'이나 '국제정세'를 언급한 것은 자연스러운 위기감의 발로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궁호
대표이사 편집국장 이장규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룰도 못 정한 오리무중 총선… 선거구획정위 "국민께 송구"

김대년 획정위원장, 국회에 정치적 결단 촉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 제출 시한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

획정위는 시한인 13일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회에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내년 4월 총선이 불과 6개월 남았지만 현재 정치권은 가장 기초적인 총선룰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국회에서 발표한 획정위 명의의 '대국민 사과문' 성명을 통해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할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죄송하게도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이어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산정기준일과 지역선거구수의 범위를 결정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할 획정위가 위원 간 의견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정치개혁이 나아갈 길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함을 표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비록 획정위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 주길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획정위는 선거구 구역표가 확정돼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유지된다. 국회에서 획정기준과 의원정수 등을 준다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로 역할을 넘긴 데 대해서는 "저희가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비율을 정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나. 나름대로 획정기준을 마련해보려 했지만 위원들 간의 이견으로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획정위가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에는 정치권이 획정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탓이 크다는 이야기다.

김 위원장은 획정기준이 국회에서 마련되면 다시 획정위 회의를 개최하는지 묻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다. 하지만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다음 회의 일정은 못 잡았고 (다시 회의를 열려면) 획정위원들과 상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획정위는 당분간 동면상태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선거구획정의 쟁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권역별 의석 배분, 농어촌 배려 방안에 대한 여야의 합의가 있은 뒤에야 다시 활동을 재개할 전망이다.

획정위는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해 '선거사상 첫 독립기구'로 중앙선관위 산하에 설치돼 지난 7월 중순부터 3개월 가량 활동해왔지만 이날까지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다만 획정위원 9명 중 중앙선관위원장이 임명한 1명을 제외하고 여야에서 각각 4명씩 획정위원을 추천해 획정위를 구성했지만 전체 위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획정안이 의결되도록 해놓은 까닭에 태생적으로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병형 기자

광윤사 주총, 신동빈 경영권 어떤 영향 미칠까

신동빈 광윤사 이사직 해임·신규 이사선임 안건
신동주, 경영권 탈환은 당분간 불가능할 듯

14일 오전 9시 30분 광윤사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주총 결과에 따라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신동주(62) SDJ코퍼레이션 대표(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와의 소송전도 함께 치르고 있어 신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활동도 원만하지만은 않다.

13일 SDJ코퍼레이션 측에 따르면 광윤사 주총의 안건은 두 가지로 첫째는 신 회장의 광윤사 이사직 해임, 둘째는 신규 이사선임이다.

신 대표가 가진 광윤사 지분은 50.0%로 모두 의결권이 있는 지분이다. 본인의 의사가 전체 주주의 과반수인 것이다.

특히 신격호(94) 총괄회장의 0.8% 지분도 신 대표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여 사실상 신 회장의 광윤사 이사 해임은 확정적으로 전망된다. 광윤사 정관에 따르면 이사직 해임과 신규 이사 선임은 의결권을 가진 주주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된다.

광윤사는 롯데그룹의 지주사인 롯데홀딩스의 지분 28.1%를 가진 최대주주다. 신 회장이 가진 광윤사 지분은 38.8%,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츠 하츠코씨가 나머지 10%를 갖고 있다.

신동주

신동빈

시게미츠 하츠코씨가 신 회장의 손을 들어주다 해도 48.8%로 신 대표의 지분에 미치지 못한다.

롯데그룹 측도 신 회장의 해임안 통과는 가정사실로 인정한 분위기다. 다만 광윤사 이사 해임이 한·일 롯데 그룹 경영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재계의 입장은 롯데그룹과는 다르다. 2년 후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 임기 만료시에 재선임이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17일 열린 롯데홀딩스 임시주총에서는 신 회장이 과반수의 의결권을 확보해 본인의 롯데그룹 경영권을 확고히 하는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신 대표 측의 주장에 따르면 롯데홀딩스 주주 중 LSI, 임원지주회, 일부 관계사 등은 롯데홀딩스 계열사·임직원임과 동시에 롯데홀딩스 주주로 있어 의결권 자체는 없다.

신 대표 측은 광윤사와 신 총괄회장의 의결권이 곧 신 대표의 의결권임을 감안할 때 신 총괄회장과 신 대표가 광윤사 등을 통해 가진 롯데홀딩스의 실질적인 의결권은 55.8%라고 주장했다.

롯데홀딩스의 이사 신규·재선임 역시 전체 주주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신 회장의 롯데홀딩스 대표 임기가 끝나는 2017년 정기주총에서 신 회장의 대표이사 연임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신 대표가 당장 신 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에서 해임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롯데홀딩스 정관에 따라 긴급이사회의 소집은 재적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미 지난 7월 롯데홀딩스 이사회가 신 회장의 손에 넘어간 것이 확인된 이상 신 대표가 추진하는 이사회 소집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한·일 롯데그룹의 지분 구조상 결국 롯데홀딩스를 가지는 자가 롯데를 장악하게 된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신 회장으로서는 경영권에 집중한다고 밝혔지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내는 물론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법정싸움에 롯데그룹 최대주주사의 이사에서 해임되는 등 경영권 압박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롯데가 이번 사태로 인해 겪는 고통은 갈수록 커질 것이다. 가장 큰 피해자는 롯데그룹 그 자체"라고 덧붙였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민유성의 수상한 행보 제2롯데사태 장본인?

신동주 자문단 자처, 법정싸움·언론 대응 적극적

산은금융지주 초대 회장을 지낸 민유성(62·사진) 나무코프 회장이 최근 보이고 있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대표(62·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와의 행보가 관심이다.

신동주 대표는 지난 8월 17일 롯데홀딩스 임시주주총회를 기준일로 재기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구석에 몰렸었다.

재계에 따르면 신동주 대표는 이후 한·일에서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과의 법정싸움을 위해 여러 대형 법률사무소를 찾았지만 국내 재계5위 롯데에 반하고 싶지 않은 국내 대형 법률사무소들은 이를 거부해 왔다.

그 때 손을 내민 것이 민 회장이다. 민 회장은 경기고 동창이자 법률자문을 맡기며 인연을 쌓아온 법무법인 양헌과 두우 변호사인 김수창 변호사, 조문현 변호사와 법률자문 팀을 꾸렸다. 본인은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을 맡았다. 또 평소 친분있는 언론사를 대동해 언론 대응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 회장이 내민 카드는 신 총괄회장의 의중과 신동주 회장이 실질적인 롯데그룹의 정점에있다는 '롯데홀딩스 경제적 가치 지분'이다.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롯데홀딩스의 실제 경제적 가치에서의 지분 가치를 계산해 보면 신 부회장이 가진 롯데홀딩스 지분은 36.5%라며 신동빈 회장이 최대주주를 배제하고 이사회를 열어 아버지 신 총괄회장을 회장직과 대표직에서 해임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신동빈 회장이 적극 추진중인 호텔롯데 상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어필하고 있다.

민 회장은 호텔롯데를 7~8차례 기업공개(IPO) 한다해도 일본 롯데홀딩스 측의 보유지분이 30% 수준으로 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 롯데와의 종속관계 자체를 해소해 한국 롯데의 계열사가 직접 호텔롯데 지분을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롯데사태의 승리자가 신동주 회장일 경우 가장 큰 수혜자는 민 회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현 기자

트럼프 막말에 훈수 둔 한국계 하버드생

韓 안보 무임승차론 두고 "8억6100만달러 지불 한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햄프셔주 맨체스터. 중도성향의 정치단체인 '노 라벨스'가 주최한 행사에서 공화당 대선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유세가 막바지를 달리고 있었다.

트럼프 후보는 40분 정도 예정된 행사를 마치기 전 마지막 질문자를 골랐다. 아시아계로 보이는 얼굴의 20대 남성이었다. 이 청년은 하버드대학의 로고가 새겨진 자주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트럼프 후보는 "하버드대학을 다니느냐"고 먼저 물었다. 질문자를 고른 이유로 보였다. 트럼프 후보 자신도 같은 아이비리그인 펜실베니아대학의 와튼경영대학원을 나왔다. 행사 도중 트럼프 후보는 이를 과시하며 자신의 판단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청년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고, 질문 기회를 줘서 고맙다는 인사말을 한 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이후 이 청년과 트럼프 후보 간에는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두고 한바탕 설전 아닌 설전이 벌어졌다. 트럼프 후보의 일방적인 발언이 쏟아졌지만 청년은 재치 넘치는 짧은 반론으로 청중들의 호응을 얻었다.

도널드 트럼프에 맞서 한국 무임승차론을 정면으로 반박한 한국계 조지프 최씨.
/폴리티코 동영상 캡처

이 장면은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의 영상에 모두 담겼다.

청년은 "당신은 지난 여름 여러 차례 한국의 방위비 분담 문제를 말했다. 당신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아무것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는 "당신, 한국에서 왔느냐"며 말을 끊었다. 청년은 "아니다. 텍사스 주에서 태어나 콜로라도 주에서 자랐다"고 답했다. 그러자 청중들이 청년에게 환호를 보냈다. 청년은 곧바로 "내가 어디 출신이건 관계 없이 사실을 바로 잡고 싶다. 한국은 매년 8억 6100만 달러(약 9800억원)의 비용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는 "그 돈은 푼돈(peanut)에 불과하다.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에 비하며 푼돈에 불과하다"고 했다. 청년이 "하지만 대신에 미국은…"이라고 반박을 시작하자마자 트럼프 후보는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 돈은 푼돈에 불과하다"며 중간에 그의 말을 끊었다. 이어 청년의 반론을 봉쇄한 채 트럼프 후보는 일방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쳤다. 청년은 한국계 하버드대생인 조지프 최씨로 알려졌다. 이미 일본 총리와의 설전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송병형 기자 bhsong@

메르스 재검출… 종식 선언 '무기한 연기'

대대적 쇄신 발표 반나절 삼성서울병원 또 '구멍'

퇴원 열흘만에 다시 양성 감염 가능성은 거의 제로

마지막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다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메르스 종식 선언이 연기됐다.

메르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던 80번 환자(35)가 고열과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삼성서울병원이 이 환자가 메르스 확진자였던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곤욕을 치른 삼성서울병원이 원장 교체 등 쇄신 발표를 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이 같은 일이 발생, 초기 대응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자 발생으로 부분 폐쇄됐던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지난 6월 23일 오후 병원 관계자들이 출입자들의 체온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80번 환자는 지난 11일 새벽 5시쯤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다른 환자들과 함께 치료를 받았다. 이 환자는 이후 7시간가량 머물면서 병원 의료진과 직원 등 29명과 환자 보호자 등 61명과 접촉했다. 이들은 현재 자가 격리조치된 상태다.

접촉 강도가 낮지만 주의가 필요한 68명도 능동감시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의 감시를 받게 됐다.

80번 환자는 애초 병원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로 보내졌지만 단 한명의 의료진도 없어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이 환자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초기 대응에 실패하면서 130여명이 불안과 불편을 겪게 된 셈이다. 일부 언론은 병원이 80번 환자의 메르스 병력을 미리 알지 못했던 것 같다는 환자 보호자의 인터뷰 발언을 통해 초기대응 실패를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마지막 메르스 환자였던 80번 환자는 국가격리병상인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재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메르스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감염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게 의료진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방역당국과 이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등은 80번 환자의 체내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증식한 것이 아니라 세포 재생 과정에서 체내에 있는 유전자 조각이 떨어져 나가 검출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 환자의 유전자 검사 수치는 음성과 양성을 판단하는 기준점 주변에 위치해 높지 않다. 살아 있는 바이러스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또 환자에게 호흡이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미뤄 환자가 보인 고열 증상은 기저질환에 의한 발열일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편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가 확산되던 5~6월 당시 이 병원 응급실을 사흘간 방문한 14번 환자(35)를 통해 90명에 육박하는 3차 감염자가 나와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후 이 병원은 응급실 개편에 이어 송재훈 병원장이 12일 사임하는 등 대대적 쇄신을 발표했으나 반나절 만에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왜 기울어졌나 했더니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강원 강릉시 경포해수욕장 앞 해상에 설치된 등표(사진)를 부실시공한 혐의로 H 건설업체 대표 김모(5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4년 11월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 발주한 경포해수욕장 앞 해상의 등표를 시공하면서 등표가 2개월도 채 못 버티고 기울어지게 부실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김영란법' 공개변론… 위헌성 따진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12월 '김영란법'의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을 의미하는 김영란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9월 시행을 앞두고 했다. 그러나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일고 국회 통과 이틀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당시 헌법소원을 제기한 대한변호사협회는 부정청탁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배우자의 금품수수를 공직자가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 점, 언론사 임직원이 규제에 포함된 점 등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시행 전인 법률의 헌법소원은 이례적이다.

현재는 3월 31일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고 주심을 강일원 재판관으로 정해 심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내년 9월 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개변론에 참여할 전문가 참고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법이다. 본인은 물론 배우자가 받은 금품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연미란 기자

"조희팔 사망 확인할수 없어 지명수배 유지"

강신명 경찰청장 2012년 사망발표 해명

경찰청이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후 중국으로 도주한 조희팔(58)에 대한 지명수배를 유지한 것에 대해 "조씨의 사망을 100%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3일 강신명(사진) 경찰청장은 서대문구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볼만한 과학적 증거는 없다"면서 "외국에서 작성된 사망진단서, 시신화장증 등으로 (사망 사실을) 선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2012년 5월 조씨가 사망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조희팔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당시 경찰은 응급진료와 사망진단을 한 의사와의 면담, 시신화장증, 유족이 참관한 가운데 장례식을 치른 동영상 등을 근거로 조씨가 사망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씨에 대한 지명수배를 현재까지 유지한 것은 조씨의 사망 사실을 우리 경찰이 100%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중국이라고 해도 조희팔이 살아 있다면 여러 정황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런 생존반응이 3년간 없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며 조씨의 생존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강 청장은 "우리 경찰이 전담 인력을 붙인 것은 아니나 일상적인 경찰 활동이나 중국 측으로부터 조희팔이 살아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받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강 청장은 경찰이 집회를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연행해 가려 했던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관련 TF를 구성해 집회시위 현장에서 언론사 취재진을 보호할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다만 경찰과 취재기자 간 당시 현장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 경찰 입장은 이렇고, 취재진은 이렇다라고 객관적으로 이 사안이 어떤 것이었는지 인식을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강 청장은 경찰 고위직 인사는 예년과 같이 12월 초·중순경에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인사 폭에 대한 언급은 삼갔다. /연미란 기자

'복지 부정수급 신고' 1인 연간 최고 5000만원 포상

정부가 복지재정 누수를 막고자 복지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1인 연 최고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3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신고 포상금은 일부 복지사업에서만 지급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처럼 신고 포상금제가 없는 모든 복지사업에 신고포상금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국고보조사업 등에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예산범위에서 지급기준과 한도를 별도로 정하고 1인당 지급액수는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대상은 부정수급자뿐 아니라 불법 부당하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민간법인·단체·시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로 정했다.

/연미란 기자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처음처럼
100%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가을을 물들이는
부드러운 한 잔
부드러운 소주의 처음, 처음처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자체설계 모바일 AP 공개 초읽기

삼성 몽구스, 인텔 코브라 잡아 먹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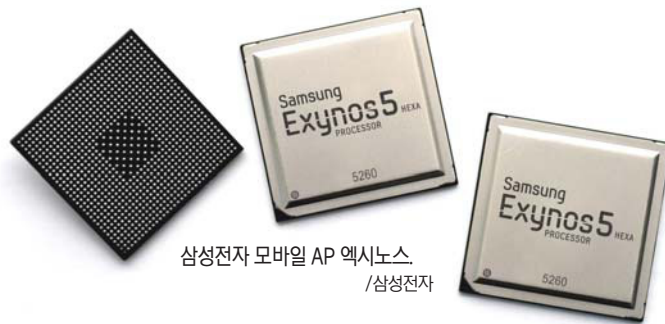
게임·멀티태스킹 등의 강점… 내년 탑재 반도체·스마트폰 사업에 긍정적 영향

삼성전자가 자체 설계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 AP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을 경우 삼성전자 반도체는 물론 스마트폰 사업에도 날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3일 전자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새로운 공정의 독자 모바일 AP를 내년 쯤 공개할 전망이다.

몽구스(엑시노스 M1)로 알려진 이 AP에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몽구스는 코브라를 잡아먹는 동물이다. 코드명에서부터 삼성전자의 의지를 읽을 수 있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시리즈를 ARM 아키텍처 기반으로 생산했다. ARM은 영국 반도체 지식재산권(IP)업체다. 반도체 제조사들은 ARM이 제공한 IP를 바탕으로 반도체를 제조하고 로열티를 지불한다.

그러나 몽구스는 삼성전자 자체 아키텍처를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몽구스는 자체 코어 설계 및 14나노 핀펫 공정을 적용해 기존 엑시노스 7420보다 45% 이상 처리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엑시노스 7420는 갤럭시S6 등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에 탑재된 AP다.

삼성전자 모바일 AP 엑시노스. /삼성전자

최근 스마트폰 전문매체 '샘모바일'이 공개한 벤치마크(성능평가)에 따르면 몽구스(2294점)는 싱글코어 테스트에서는 애플 아이폰 6S에 적용된 AP A9(2487점)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멀티코어 테스트에서는 6908점으로 A9(4330점)을 압도했다. 특히 몽구스는 모바일 게임과 멀티태스킹 등에서 강점을 발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 업계는 내년 초 삼성전자가 출시할 전략형 스마트폰 갤럭시S7(가칭) 일부 물량에 몽구스가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갤럭시S7에는 출시 지역에 따라 몽구스와 퀄컴의 스냅드래곤820 등 2~3종류의 AP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몽구스가 시장 연착륙에 성공할 경우 삼성전자 반도체는 물론 스마트폰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이 메모리와 3차원(3D) 낸드에 이어 시스템반도체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내년 쯤 인텔을 넘어서는 종합반도체 회사로의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자체 설계 AP 적용 제품이 확대될수록 삼성전자 스마트폰의 유연성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세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AP 내 코어도 자체 설계함으로써 시스템 반도체 역량 레벨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자체 설계 AP를 활용해 스마트폰 제품 최적화도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삼성 스마트 TV 디지털 캠페인 '올웨이즈 온'을 기획한 삼성전자 중남미총괄 마케팅 매니저 '안나 카롤리나'가 신규 스토리 '메모리' 영상을 선보이고 있다. /삼성전자

삼성 TV '가족 사랑' 주제로 중남미 공략

디지털 캠페인 '올웨이즈 온' 새로운 3가지 스토리 선봬

삼성전자가 상반기 누적 조회수 1억5000만건을 기록한 스마트 TV 디지털 캠페인 '올웨이즈 온(Always on)'의 새로운 스토리를 선보이며 중남미 TV 시장 1위 수성에 나선다.

1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주말(현지시간)부터 스마트 TV 기능과 SUHD의 화질을 소비자에게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스토리의 디지털 캠페인을 브라질·아르헨티나·칠레 등 중남미 18개국에 선보였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까지 선보인 '올웨이즈 온' 1편 '싱글 대디'와 2편 '아빠 사랑'은 각각 조회수 7000만건, 8000만건을 돌파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이번에 선보이는 영상은 스마트 TV를 통해 △해외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청혼하는 남자 △임신소식을 알리는 아내 △아들이 보낸 가족사진을 보는 할아버지 등 '메모리'를 주제로 한 3가지 스토리로 구성됐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올웨이즈 온' 캠페인 성공 등으로 중남미 스마트 TV 전체에서 2대 중 1대 가까이 팔았다. 이번 신규 캠페인에서 프리미엄 SUHD TV 'JS9500'을 활용하며 중남미 스마트 TV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삼성전자의 7월 중남미 UHD TV 시장 점유율은 1월 대비 약 10% 이상 상승하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남미 전체 TV 시장 점유율도 약 35%(이하 GFK 매출기준)로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중남미에서 가장 큰 시장인 브라질에서는 작년 월드컵 특수를 기점으로 꾸준히 점유율을 올리며, 전체 TV 시장에서 약 35%의 점유율로 1위를 기록하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조한진 기자

이통3사, 3분기 실적 예상보다 저조할 듯

단통법 효과 정면배치 중저가폰 이용 급증에 저가 요금제 선호 영향

이동통신 3사의 올해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 실적이 호전될 것이라는 당초 전망과 배치되는 결과다.

3일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지난 2분기보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에프앤가이드가 발표한 3분기 컨센서스에 따르면 이통 3사 모두 2분기보다 매출이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SK텔레콤이 직전분기보다 2.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0.88%, 0.52%에 그칠 전망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사 모두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동통신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 실적이 호전됐다는 업계의 평가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다.

SK텔레콤은 3분기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는 2분기 1100억원 규모의 일회성 구조조정 비용 지출이라는 변수를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 3분기 SK텔레콤은 매출·영업이익·순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과는 단통법을 비롯해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저가폰 이용 급증과 저가 요금제 선호 현상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점이 반영됐다. 과거 프리미엄폰과 고가 요금제를 선택했던 이용자가 중저가폰으로 구매 패턴이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저가 요금제 이용자 증가가 가입자당매출(ARPU)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통사의 공통된 반응이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선택약정)과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입자 증가도 요인 중 하나다.

이통업계는 크게 단말기지원금제와 20%요금할인제로 고객을 유치하고 있는데, 이통사 수익면에선 두 요금제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단말기지원금제에서 고객에 주는 지원금은 이통사와 단말 제조사가 분담하지만, 20%요금할인제는 이통사가 100% 부담한다. 따라서 20%요금할인 고객이 늘수록 이통사엔 불리하다. 미래부에 따르면 20%요금할인제 고객은 9월말 현재 200만명을 돌파하며 급증 추세에 있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3분기 서비스 매출액이 소폭 늘어나겠지만 데이터요금제 출시와 선택약정할인폭 확대의 영향으로 무선 ARPU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3분기 갤럭시 노트5와 갤럭시 S6 엣지플러스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증가도 영향을 끼쳤다. 이통사 관계자는 "3사 모두 프리미엄 스마트폰 판매 증가로 지원금 지출이 늘었다"며 "마케팅 비용 증가가 영업이익과 순이익에는 악재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통사는 향후에도 이 같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문경 기자 hm0108@

LG, 국내車 부품업계 최초 ISO22301 인증

LG전자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 최초로 국제인증기관 'BSI(영국표준협회)'로부터 'ISO22301(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ISO22301' 인증은 기업이 재해·사고로 인한 비즈니스 중단을 최소화하도록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제표준규격이다.

해외의 경우 대지진 등으로 기업 활동이 큰 타격을 받았던 사례가 있듯이, 최근 국내도 크고 작은 재해·사고에 대한 위기대응 및 복구 관리체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LG전자는 지난 6월부터 비즈니스연속성경영시스템 구축 태스크를 시작했다. 국제인증기관 'BSI'를 통해 현장심사와 모의훈련 등 인증심사를 거쳐 최종 'ISO22301' 인증을 획득했다. /조한진 기자

전 세계 단 2대… '나만의 벤틀리' 선사

'플라잉스퍼' 한정판 출시 이상엽 디자이너 제작 주도 외장 80개, 가죽 15개 컬러 로고 대신 이니셜 새길수도

벤틀리가 단 한사람만을 위한 자동차를 선사한다. 이를 위해 벤틀리모터스코리아는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별 맞춤 서비스인 뮬리너를 소개하는 '뮬리너데이'를 개최하고 플라잉스퍼의 한정판 모델을 출시했다.

플라잉스퍼 한정판 모델의 가격은 화이트에디션이 3억3000만원대, 블랙에디션이 3억4000만원대에 책정됐다. 국내 출시된 플라잉스퍼 한정판은 단 2대 뿐이다. 한정판은 이상엽 벤틀리 디자이너의 주도로 제작됐다.

벤틀리 플라잉스퍼 코리아 에디션 옆에서 이상엽 벤틀리 디자이너(왼쪽)와 우다이 세나파티 뮬리너 기술운영부 책임자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벤틀리

이 디자이너는 "뮬리너 에디션에 컬러와 소재에 대한 제한은 없다"며 "외장컬러는 80가지 색이 제공되고 인테리어 가죽은 15개 색깔이 제공되는데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색 뿐만이 아니라 벤틀리 로고를 없애고 자신의 이니셜을 새길 수도 있다. 시트의 바느질 방법도 원하는 대로 제작이 가능하다. 또 안전벨트, 작은 부품까지도 고객이 원하는 방향에 따라 제작이 가능한 것이 뮬리너 서비스의 특징이다. 뮬리너 에디션의 완성기간은 통상 6개월이 소요된다.

플라잉스퍼 뮬리너 에디션은 기존 모델과 동일한 6.0리터 트윈터보 W12 엔진과 ZF 8단 변속기를 장착했다. 최고출력은 625마력, 최대토크는 81.6kg·m이다.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불과 4.6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 플라잉스퍼 뮬리너 에디션은 서울 강남전시장에 전시된다.

이날 벤틀리는 플라잉스퍼 외에 2016년형 신형 컨티넨탈 GT도 출시·전시했다. 신형 GT의 기본 가격은 8기통 모델이 2억4000만원부터, 12기통 모델은 2억7000만원대부터 시작한다. 이 가격 역시 고객이 원하는 뮬리너 서비스에 따라 달라진다.

벤틀리 고위 관계자는 "안전과 법규에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고객들의 모든 요구를 수용한다"며 "고객들은 뮬리너 서비스를 통해 같은 벤틀리지만 전 세계에 단 한 대뿐인 자신만의 벤틀리를 소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폭스바겐 3차 소송 규모 226명 '눈덩이'

바른 "리콜 방안 미흡" 차량 생산 美서 집단소송 예정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소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3차 소송이 이어진 가운데 해당 차량을 생산한 미국에서의 집단소송도 이뤄질 예정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폭스바겐 및 아우디 자동차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사기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및 매매대금반환청구' 3차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3일 제기했다.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판매 대리점 등이 대상이다.

바른은 폭스바겐의 미흡한 리콜 방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소송의 당위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리콜 대상 차량은 아니지만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브랜드 이미지 실추로 중고차 판매 가치가 하락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소송도 별도로 제기할 계획이다.

법무법인 바른 소속 하종선 변호사가 13일 서울 대치동 바른빌딩에서 폭스바겐 사건과 관련한 미국 집단소송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1차 2명, 2차 38명에 이어 3차 소송을 제기한 소송인단 규모는 226명으로 점차 급증하고 있다.

바른은 지난달 말 1차 소송 후 2000여명이 소송 제출 서류를 보내오는 등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 소송인단을 계속 모집하고, 매주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에서의 집단소송도 준비 중이다. 국내 수입되는 파사트 등 해당 일부 차종이 미국 테네시주 공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바른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다. 독일 등 다른 국가도 같은 이유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사건을 맡은 하종선 변호사는 한국과 미국(캘리포니아주) 양국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어 동시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는 게 바른 측 설명이다.

하 변호사는 "독일 폴크스바겐그룹이 미국 소비자에게는 거액의 보상을 지급하면서 우리나라 고객에게는 소액의 보상만을 하며 차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서도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환경부는 폴크스바겐코리아가 배기가스 조작 의혹이 있는 유로5 인증 차량 466대를 회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정필 기자 roman@

한국타이어가 후원하는 겐 구시 선수의 경기 모습.

2년 연속 '포뮬러 드리프트' 종합우승

한국타이어 후원 선수 1~3위 휩쓸어

한국타이어(대표이사 서승화)는 '2015 포뮬러 드리프트' 대회에서 시즌 종합 1, 2, 3위를 석권하며 2년 연속 종합 우승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측에 따르면 지난 9~10일 미국 캘리포니아 어윈데일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한국타이어가 후원하는 프레드릭 아스보 선수와 겐 구시 선수는 각각 1, 2위를 차지하며 시상대에 올랐다. 한국타이어의 크리스 폴스버그 선수도 최종 라운드 6위에 올랐다.

이로써 한국타이어는 후원 선수가 시즌 종합 1~3위를 휩쓸며, 2년 연속 시즌 종합 우승을 달성했다.

포뮬러 드리프트 대회는 극한의 조건 속에서도 핸들링과 그립 성능 등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타이어 퍼포먼스가 중요한 경기로 손꼽힌다.

결승선 통과 순서만으로 평가하는 다른 모터스포츠 대회와는 달리 스피드와 앵글, 라인, 스타일이라는 독특한 평가 항목을 통해 속도뿐만 아니라 정확한 각도 및 섬세한 코스 드라이빙 스킬, 예술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승을 가리는 드리프트 모터스포츠 전문 대회다. /이정필 기자

쉐보레 스파크 '고객만족도 1위' 달성

한국능률협회 조사

쉐보레 경차 더 넥스트 스파크(사진)가 KMAC(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주관한 '2015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경형 승용차 부문 1위를 달성했다.

13일 쉐보레에 따르면 올해 24번째를 맞는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서비스·제품에 대한 고객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계량화하는 조사다. 올해는 111개 산업의 354개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에서 소비생활을 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녀를 대상으로 했다. 요소만족도(40%), 전반적 만족도(40%), 재구매의향(20%)의 항목에 걸쳐 소비자 만족도를 평가했다.

쉐보레 더 넥스트 스파크는 올해 조사에서 총 100점 만점에서 78.4점을 획득했다. 기아자동차 레이, 모닝을 따돌리며 경형 승용차 부문 1위를 달성했다.

이경애 한국지엠 마케팅부문 전무는 "쉐보레 스파크는 국민 경차로 자리매김 해왔고 올해 더 넥스트 스파크를 출시하며 대한민국 대표 경차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며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 1위 달성은 더 넥스트 스파크의 고급스러운 디자인, 동급 최고 안전성, 압도적인 퍼포먼스, 프리미엄 편의사양, 우수한 실연비 등 탁월한 제품 경쟁력이 고객들에게 인정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아시아나항공 고객만족 1위 선정

아시아나항공(대표 김수천)은 13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15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에서 항공부문 1위에 선정됐다.

KMAC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서울 및 수도권,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최근 1년 이내 항공편 탑승 경험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아시아나는 항공부문 고객만족도 1위로 뽑혔다.

오근녕 아시아나항공 경영관리본부장은 "우리만의 고급스럽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인정받았다"며 "향후에도 고객 만족을 넘어 감동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구글·LG전자 '넥서스 5X' 공개

이통사 예약가입 시작 '마시멜로' 최초 탑재

구글이 최신형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6.0 버전을 탑재한 넥서스 스마트폰 2종을 국내에 선보였다. 국내 공개에 맞춰 이통3사는 13일부터 예약 가입을 받고 20일부터 공식 판매를 시작한다.

구글은 13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인 '마시멜로'(버전 6.0)를 소개했다. 또 마시멜로가 최초로 탑재된 '넥서스5X'와 '넥서스 6P'를 공개했다. LG전자와 화웨이가 각각 구글과 협력해 만든 스마트폰이다.

LG전자가 만드는 넥서스5X는 500만 화소 전면 카메라와 1230만 화소 후면 카메라를 장착했으며 화면 크기는 5.2인치다. 4K UHD 동영상 촬영과 'USB C타입' 포트를 적용해 연결 편의성을 높였다.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08 헥사코어 64피트 프로세서가 탑재됐다. 배터리 용량은 전작 넥서스5보다 20% 늘어난 2700mAh이고 무게는 136g으로 아이폰6(129g)보다 다소 무겁고 갤럭시S6(138g)보다는 조금 가볍다. 색상은 카본(블랙 계열), 쿼츠(화이트 계열), 아이스(하늘색 계열) 등 3가지이다.

넥서스5X의 출고가는 부가세와 배송료 등을 포함해 16GB가 50만9000원, 32GB가 56만9000원이다. LG전자는 이달 20일부터 국내 이동통신 3사 매장에서 넥서스5X를 출시할

구글의 넥서스 5X(쿼츠 색상). /구글코리아

예정이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으며, 배송은 20일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이동통신 3사는 공식 온라인 쇼핑몰(T월드 다이렉트, KT 올레샵, U+ 샵)을 통해 예약가입을 시작했다. 예약가입자에게는 구글의 가상현실(VR) 기기 'C1-글래스'를 비롯한 다양한 경품을 준다.

SK텔레콤은 C1-글래스 증정과 더불어 신규와 기기변경 가입시 30일 이내 구글 플레이스토어 2만원 청구 할인 혜택이 있다.

KT는 넥서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200여개 전문 매장을 꾸리고 체험단말을 전시할 계획이다. 또 연말까지 넥서스 5X를 개통한 고객 1만명을 대상으로 넥서스 '스페셜' 패키지(크롬캐스트, C1-글래스, USB C-B형 젠더)를 무료로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구입자 전원에게 USB C타입 젠더 2개를 추가 사은품으로 준다. 예약가입 고객에게는 USB메모리 16GB와 넥서스용 Otg 케이블도 제공한다. /정문경 기자 hm0108@

엔씨소프트,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

개발 등 17개 부문, 23일 까지

엔씨소프트는 오는 23일까지 2015년 하반기 신입사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게임 개발 ▲서비스 플랫폼 개발 ▲자연어처리기술개발 ▲게임 AI 기술 개발 ▲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게임 기획 ▲UX 디자인 및 플랫폼 기획 ▲웹·모바일 서비스 기획 ▲게임 사업 ▲시스템 엔지니어 ▲웹 관리 ▲보안 관리 ▲IR ▲HRM(Human Resource Management) ▲구매 ▲엔씨소프트 문화재단 사회공헌 등 총 17개 부문이다.

채용 절차는 ▲입사지원서 접수 ▲서류 전형 ▲NC TEST(인성·적성검사 및 각 직무별 직무능력평가) ▲역량 면접 ▲인성 면접 순이다. 서류 전형 결과는 11월 6일 확인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중순 경 발표할 예정이다.

2016년 전문연구요원도 모집한다. ▲게임 개발 ▲서비스 플랫폼 개발 ▲자연어처리 기술개발 ▲게임 AI(Artificial Intelligence)기술 개발 등 4개 부문이다. 해당분야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전문연구요원 신규편입 대상자가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엔씨소프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김종훈 기자

허창수 GS 회장, 베트남서 사장단회의

"경제 영토 확장, 中企와 함께"

우수 벤처 제품·농수산식품 판로 지원 당부

허창수 GS그룹 회장(사진)이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을 확대하는 전략을 구상하면서 우수 중소기업 파트너들의 동반 진출 지원을 계열사 사장단에 주문했다.

허 회장은 12일부터 이틀간 베트남 호찌민에서 사장단 회의를 열고 "GS는 출범 이래 국내 시장의 한계를 넘어 경제영토를 넓히는 글로벌화 전략을 추진해 왔다"면서 "동남아 시장은 우리와 지리적·문화적으로 가깝고 성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우리의 전략 실행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GS그룹이 13일 전했다.

허 회장은 이어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인도를 연결하는 거대 경제권의 한복판에 위치한 요충지로서 우리가 동남아 진출의 교두보로 삼기에 최적지로 평가된다"면서 "중국 등 해외시장에서 축적한 값진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해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할 때에도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난 과감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며 "창의적인 방법으로 기존 자원들을 잘 조합해 해외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허 회장은 중소기업과과 함께 해외무대로 동반 진출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GS 계열사들은 해외 네트워크를 통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 우수 벤처의 제품과 농수산식품 등의 해외판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우수한 중소기업 파트너들과의 동반 진출을 지원하고 해외에서도 글로벌 청년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 사장단에 주문했다.

이번 사장단 회의에는 허승조 GS리테일 부회장, 허진수 GS칼텍스 부회장, 나완배 GS에너지 부회장, 허명수 GS건설 부회장,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 하영봉 GS E&R 사장, 이완경 GS글로벌 사장, 정택근 ㈜GS 사장, 손영기 GS파워 사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고춘석 GS EPS 대표 등 주요 계열사 CEO 들이 참석했다.

GS는 출범 당시인 2004년 매출 23조원 중 수출·해외매출 비중이 약 30%(7조1000억원)에 머물렀으나 2014년에는 그룹 전체 매출 61조8000억원 중 수출 비중이 약 56%(34조7000억원)로 늘어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 변모했다. GS는 전 세계에 60개 해외법인과 45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김종훈 기자 fun@metroseoul.co.kr

통신·전력 최강자 스마트에너지 선도 맞손

KT, LS산전과 ICT 융·복합 MOU

KT와 LS산전이 스마트 에너지 분야에서 힘을 모은다.

KT는 13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LS산전과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 사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KT는 복합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KT-MEG(Micro Energy Grid) 개발을 비롯해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글로벌에서도 스마트에너지 사업 성과를 높여가고 있다. LS산전은 전력 공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첨단 전력 솔루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와 ICT 분야에서 핵심역량과 기술을 보유한 KT와 LS산전 양사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국내 및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공동으로 개발, 수행하는 데 합의했다.

협력 분야는 ▲산업단지 효율화 사업 ▲스마트그리드(지능형 전력망) 확산 사업 ▲국내·외 친환경 에

13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신규식 KT 기업영업부문장과 한재훈 LS산전 사장이 에너지 ICT 융·복합 사업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KT

너지 자립섬 구축사업 ▲해외 대규모 AMI(지능형검침인프라) 사업 및 통신망 구축이 필요한 전력 IT(정보기술) 사업 등이다.

양사는 ICT 기업과 에너지 기업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기반 융·복합 에너지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에너지와 ICT 융합 분야의 중장기 연구과제를 선정해 기술개발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한재훈 LS산전 사장은 "융·복합 ICT 산업의 대표 기업인 KT와 스마트그리드의 대표주자인 LS산전이 스마트에너지 분야에서 협력함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CJ헬로비전

'헬로 두모악 서밋' 개최

업계 소통의 장 마련

CJ헬로비전은 지난 12일 경기도 여주에서방송채널사용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최고경영자(CEO)와 방송산업 미래와 상생 발전을 논의하는 '2015 헬로 두모악 서밋'을 개최했다.

12회째를 맞은 올해 행사는 '더 협력하자 (Do More Harmony)'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PP간 새로운 기회 모색 △OTT와 스마트 등 차세대 서비스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CJ헬로비전은 이날 와이파이(WiFi)로 방송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동글형 OTT '티빙스틱'을 시연하고 인터넷 기반 OTT 산업에서 PP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김진석 CJ헬로비전 대표는 "SO와 PP 협력은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국내 방송 생태계 진화를 이끌 것"이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삼성카드, 단기채권 추심업무 자회사 이관 검토

금융규제 완화 흐름 속 추진… 금융위 인가여부 촉각

삼성카드가 중소기업 영역으로 여겨져 온 채권추심업에 진출할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직접 관리해온 단기연체 채권 관리를 자회사인 삼성카드고객서비스에 넘겨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삼성카드는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만기 3개월 이내만 자체적으로 회수하고 4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외부 신용정보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신용정보회사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력, 전산설비,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

출자자는 30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갖춰 금융위 심사를 통과하면 된다.

삼성카드 측은 채권추심업 진출에 대해 "채권추심을 이관해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고 신용카드업에 보다 집중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신용정보업을 중소업체의 업종으로 판단, 과거 현대캐피탈과 KT의 채권추심업 진출을 불허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삼성카드의 신용정보업 진출 가능성에 힘이 실리면서 업계에선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관련업계는 최근 "삼성카드의 신용정보업 진출을 막아 달라"는 건의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들은 삼성카드가 SGI신용정보의 15%, 삼성생명이 A&D신용정보의 19.5%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당국이 신용정보업 진출을 허가하면 삼성금융계열사에 이중 인가로 특혜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대캐피탈, 롯데캐피탈, KT캐피탈 등 대기업 계열사의 대부업체 진출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카드 관계자는 "삼성카드고객서비스가 해오던 만기 3개월 미만과 삼성카드의 부실채권만 이관하는 것"이라며 "타업권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용정보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삼성카드고객서비스가 채권추심업 인가를 받으면 지난 2010년 KS신용정보의 인가 이후 5년 만에 첫 사례가 된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IBK기업은행 알토스배구단, 사랑의 스파이크 기부금 전달 IBK기업은행은 지난 12일 IBK 알토스배구단 홈구장인 화성종합실내체육관에서 화성시 내 배구부 운영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 스파이크'로 모금된 기부금 2000만원을 화성시 배구협회, 송산중·고등학교 등에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 알토스배구단은 1득점마다 기부금 10만원을 적립해 화성시에 있는 복지단체 등에 기부하는 '사랑의 스파이크' 행사를 지난 2012~2013 시즌부터 진행하고 있다. 권선주 IBK기업은행장(가운데)이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 /IBK기업은행

삼성화재 설계사 1만6000명 '희망선물' 10주년

2455명 장애인에 희망의 빛

'500원의 기적'

삼성화재 보험설계사가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10년째 장애인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화제다.

삼성화재는 삼성화재 RC(Risk Consultant)의 사회공헌활동인 '500원의 희망선물'이 10주년을 맞이했다고 13일 밝혔다. 삼성화재 RC들은 장기보험 계약을 맺을 때마다 수수료에서 500원씩 모아 마련한 기금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가정이나 장애인 시설의 주방, 화장실, 세면대, 공부방 등 생활환경을 개선해 왔다.

'500원의 희망선물'은 지난 2005년 6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다리를 쓰지 못하는 한 여성이 주방을 이용하지 못해 복지관 도시락으로 생활한다는 소식에 RC들이 "주방을 고쳐주자"며 나선 데서 시작됐다.

10월 현재 약 1만 6000여명의 삼성화재 RC가 참여하고 있으며 10년간 누적 모금액은 48억원을 넘어섰다. 500원짜리 동전으로 치면 약 960만 개로, 이를 세로로 쌓으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8848m)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삼성화재는 현재까지 220곳, 총 2455명의 장애인에게 '500원의 희망선물'을 전했다. 한 가구당 약 1500만원의 재원이 투입된 셈이다.

'500원의 희망선물'은 장애인 주거환경의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데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사로를 도입하거나 문턱을 없애 이동권을 확보하고, 화장실과 침실 등에 보조손잡이를 설치해 낙상 위험을 줄였다. 싱크대나 책상 등 가구 높이를 장애인에 맞춰 제작하는 등 기부자 관점이 아닌 수혜자의 필요에 맞춘 사회공헌 사업으로도 의미가 깊다는 평이다.

한편 지난 8일 거제시 정신지체 특수학교 애광학교에서는 '500원의 희망선물' 10주년 기념행사를 겸한 220호 입주식이 열렸다. 애광학교는 기존 체력단련실을 감각통합훈련실로 리모델링해 감각 반응 치료기와 흔들사다리, 암벽등반 등 장애학생을 위한 체험시설을 선물로 받았다. /김보배 기자

삼성화재 임직원과 RC들이 13일 서울 중구 을지로 삼성화재 본사에서 '500원의 희망선물' 10주년을 축하하며 1호에서 220호까지 집을 고쳐준 장애인 가정과 시설의 이름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삼성화재

해지된 보험계약, 부활 기한 2년→3년 연장

금감원, 내년부터 시행
보험감독업무세칙 개선

내년부터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계약을 살릴 수 있는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한 부활(효력회복) 신청 기간을 연장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소비자가 보험료를 연체하는 경우 보험사가 14일 이상 납입을 독촉하고, 이 기간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 보험계약이 해지된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계약자가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에 부활 신청을 할 수 있다.

지난해 보험료 납입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은 264만건으로 전체 보유계약 중 2.8%를 차지한다. 이 기간에 부활된 계약은 46만건이다.

가입자들은 경제상황이 호전되거나 기존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 보험금 또는 적용 이율이 더 유리한 경우 등의 이유로 해지된 보험계약을 살리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부활신청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경제적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했으나 보험혜택을 계속 받기를 원하는 계약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보험계약에 대한 유지율도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보배 기자

동부화재

'3대질병' 보장강화보험 출시

동부화재는 보장자산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3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보장을 강화한 '내인생행복플러스종합보험'을 13일 출시했다.

내인생행복플러스종합보험은 질병사망과 3대질병 진단을 동시에 보장하기 때문에 기존에 암진단비, 뇌졸중진단비,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와 질병사망을 개별적으로 가입하던 것에 비해 고객 편의성이 높다. 3대질병 진단시 가입금액의 100%를 최고 3000만원까지 선지급하고, 추후 질병사망시 100%를 최고 3000만원까지 추가 지급하는 형태다.

또한 한국인의 주요질환인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해 기존 진단비 지급에서 사망과 수술, 입원시에도 보장 가능하다. /김보배 기자

배당주 투자 적기 10월… 유망 종목은?

SKT·메리츠·한전·KB손보 등 눈여겨 볼만

낮은 금리·정부 배당 친화정책 등 투자자 이목
뚜렷한 지수 상승 요인 없는 것도 매력 포인트

연말 배당시즌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배당주에 쏠리고 있다. 올해 금리가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데다 정부의 배당 친화정책이 더해지면서 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의 배당성향은 지난달 말 기준 평균 17.456%로 2013년 13.599%, 2014년 15.331%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배당성향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판단, 유망 배당주에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주주에게 배당으로 돌아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주주친화적인 기업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가계소득 증대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 3대 패키지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배당 증진을 독려해왔다.

오정일 신영증권 연구원은 "유가증권시장의 2012~2014년 배당성향과 배당수익률은 각각 24.13%, 1.37%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주주친화적 배당정책을 실시하는 유망종목 대상의 배당투자 매력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함께 고려한다면 기업의 배당확대 움직임은 더욱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10월은 연말을 앞두고 배당주 투자의 적기로 알려져 배당주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이후 배당주의 월별 수익률 중 10월 배당주의 벤치마크(비교기준) 대비 초과수익률은 1.3%포인트로 연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 등 연말까지 뚜렷한 코스피지수 상승 요인이 없다는 점도 배당주에 매력을 더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배당주 투자를 권하면서 다양한 투자 전략을 추천하고 있다.

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SK텔레콤, KT&G, 메리츠종금증권, DGB금융지주와 중소형주에서는 한국쉘석유, 서원인텍, 블루콤 등을 꼽았다. 고배당주 중에서도 향후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큰 종목이라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또 "한국의 배당수익률은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낮아 앞으로 높아질 여지가 충분하다"며 향후 배당 확대가 기대되는 강원랜드, 고려아연, 오리온, GS리테일, 오뚜기 등을 추천주로 제시했다.

김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1주당 배당금을 주가로 나눈 배당수익률보다는 배당과 관련된 지표를 통해 주가 상승을 예측하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주당배당금(DPS)이 증가한 기업에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DPS가 전년 대비 증가한다는 의미는 이익이 늘었거나 이익이 유지되면서 배당 성향이 확대됐다는 의미로, 실적이 좋은 배당주를 고르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김 연구원은 DPS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 가운데 연간 영업이익증감률이 높은 한국전력, KB손해보험, 삼성증권, 강원랜드, 코웨이, CJ제일제당, CJ헬로비전, 현대산업, 한화케미칼, 에스원 등을 추천했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가계대출 급증세… 8월 9조8000억 늘어

지난 8월중 가계대출이 10조원 가까이 급증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8월 중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9조8000억원 증가했다. 지난 4월 10조1000억원이 증가한 데 이어 사상 2번째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이 가계에 빌려준 자금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8월은 부동산 시장의 비수기임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급증세가 전혀 누그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의 8월 말 잔액은 773조1000억원으로 사상최대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6조7000억원 증가했고, 휴가철 자금 수요로 인해 마이너스통장 등을 중심으로 한 기타 대출도 3조1000억원 늘었다.

금융업권 가운데 예금은행에서는 주택담보대출 6조2000억원, 기타대출 1조6000억원 등 7조8000억원이 늘었다. 저축은행과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은 2조원 증가했다.

/차기태 기자 folium@

하이투자증권, 연7% 수익추구 ELS 등 2종 공모

하이투자증권은 오는 14일부터 16일 오후 1시까지 ELS 2종을 총 200억원 규모로 공모한다. 상품의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10만원 단위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이투자증권 고객지원센터(1588-7171)로 문의하면 된다. /하이투자증권

SK증권, 내일까지 DLS 공모

SK증권은 오는 15일까지 파생결합증권(DLS)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제249회 DLS는 런던 금 오후 고시가격, 런던 은 고시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조기상환형 원금비보장 상품이다. 두 기초자산이 매 6개월 조기상환평가일마다 최초기준가격의 95% (6개월, 12개월), 90% (18개월, 24개월), 85% (30개월, 36개월) 이상이면 연 6.5%의 수익을 지급한다. 또한 조기상환 되지 않고, 만기평가일까지 두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3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에도 연 6.5% (총 19.5%)의 수익을 지급한다. /김보배 기자

한화투자증권, 금융권 최초 부실채권 기부

사회적기업 주빌리은행에 11억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12일 보유하고 있던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주빌리은행에 기부했다고 13일 밝혔다. 채권은 원금 기준 약10억8000만원 어치 규모로 부실채권을 주빌리은행에 기부한 금융사는 한화투자증권이 처음이다.

주빌리은행은 서민이 빚으로 고통받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8월 27일 사단법인 희망살림과 경기도 성남시 내 종교단체 등이 손잡고 설립한 민간단체다.

그동안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에 넘기고 대부업체는 넘겨받은 채권을 추심함으로써 각각 이익을 취해왔다.

주빌리은행은 연체된 부실채권을 시민이 모은 기금으로 매입해 소각함으로써 채무자들이 각자 자신의 형편에 맞게 빚을 갚아나가도록 돕는다.

한화투자증권은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추심이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는 주빌리은행의 취지에 공감, 금융회사로서 서민경제와 금융소비자 보호에 동참하기 위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보유물량 전부를 주빌리은행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주빌리은행은 한화투자증권으로부터 기부 받은 부실채권을 소각해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할 계획이다. /김보배 기자

외국인, 지난달 주식 1조8000억원 순매도

채권도 1조9000억원 유출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주식시장에서 3개월 연속 순매도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2015년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주식 1조8000억원을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사우디가 9463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이어 룩셈부르크(4631억원), 프랑스(3783억원)가 뒤를 이었다. 순매수 규모는 미국이 3933억원, 싱가포르(2633억원), 캐나다(1940억원) 순이었다.

지난달 말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주식 보유 규모는 414조2000억원으로 8월 말 대비 8조7000억원 증가했다. 외국인 주식비중은 8월 28.4%에서 9월 28.6%로 소폭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164조5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 보유액 가운데 39.7%를 차지했다. 이어 영국(33조5000억원, 8.1%), 룩셈부르크(24조3000억원, 5.9%) 순이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은 상장채권 9000억원도 순유출해 8월 2000억원에 이어 순유출을 지속했다. 순매수 규모는 1조9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000억원 감소했고, 만기상환 규모는 1000억원 증가한 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프랑스가 6000억원으로 순유출 규모가 가장 컸고 스위스(2000억원)와 룩셈부르크(1000억원) 등도 순유출 상위권에 올랐다. 순투자의 경우 중국(1439억원), 영국(1236억원), 캐나다(13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말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채권은 8월 102조7000억원에서 9000억원 감소한 101조8000억원으로, 외국인 비중 또한 전월 6.6%에서 6.5%로 소폭 감소했다.

국가별 보유 규모는 미국이 18조3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 보유액의 17.9%를 차지했고 중국과 룩셈부르크는 각각 17조1000억원(16.8%), 12조2000억원(12.0%)을 보유해 뒤를 이었다.

/김보배 기자

서울시립교향악단

비바 윈즈

10.10 SAT | 16:00

국립극장 KB국민은행
청소년하늘극장

연주 서울시향 관파트 단원

티켓 전석 2만원 (학생 50% 할인)

비바 비올라

11.10 TUE | 20:00

금호아트홀

연주 발티카 콰르텟

티켓 전석 2만원 (학생 50% 할인)

예매 서울시립교향악단 1588-1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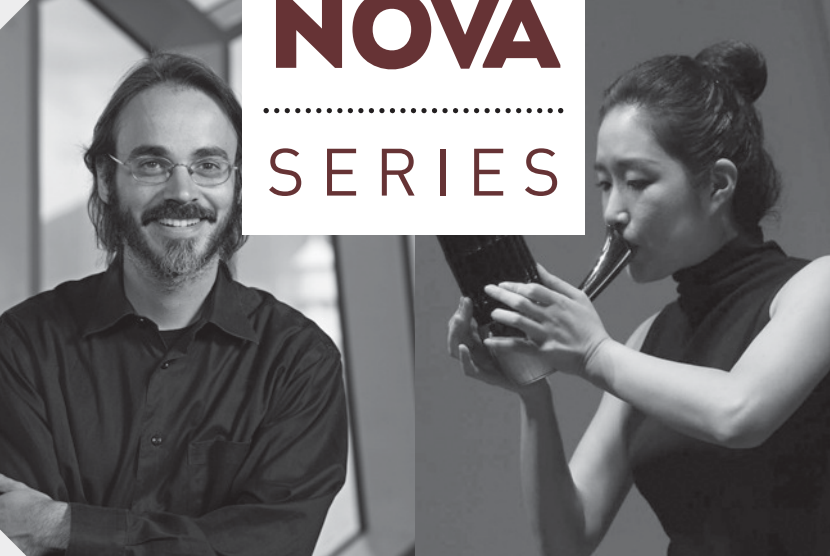
아르스 노바 시리즈 III

10.30 FRI | 20:00

LG아트센터

관현악 콘서트 - 세기의 소리

지휘 일란 볼코프 Ilan Volkov, conductor
생황 우 웨이 Wu Wei, sheng

티켓 R 50,000 **S** 30,000 **A** 10,000

아르스 노바 시리즈 IV

11.05 THU | 19:30

세종체임버홀

체임버 콘서트 - HIGH & LOW

지휘 일란 볼코프 Ilan Volkov, conductor
생황 가민 Gamin, sheng

티켓 R 30,000 **S** 20,000 **A** 10,000

공동주최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예매 서울시립교향악단** 1588-1210 **인터파크** 1544-1555 세종 체임버홀 인포샵 02-399-1114 **LG 아트센터** 02-2005-0114

전세난민 서울 엑소더스… 경기도 몰린다

인프라 탄탄·거미줄 교통망 고양·남양주·용인시 인기 8월 경기도서 3159건 거래

서울 외곽으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서울 엑소더스'가 확연해지면서 경기도 아파트 매매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의 8월 '관할 시도외 서울 거래량'(서울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아파트 거래를 한 거래량을 나타냄)을 보면 전국 5182건 중 경기도가 3159건으로 가장 많다. 경기도 지역별로는 고양시가 436건으로 가장 많고 남양주시 377건, 용인시 280건, 김포시 225건, 성남시 187건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전세 정도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경기도에 수요층이 몰리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나 남양주시, 용인시 등은 기반시설이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해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 관심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는 3.3㎡당 1191만원으로 경기 아파트 평균 3.3㎡당 매매가 962만원보다 229만원이나 비쌌다.

이에 고양시와 남양주시, 용인시, 김포시 등의 이달 공급 물량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효성은 10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일대 '용인 기흥 효성해링턴 플레이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 바로 앞에 청곡초등학교가 있어 교육 여건이 좋다. 단지 주변 숲이 있고 청명산이 조망되는 동시에 등산로 이용도 가능하다.

또한 반경 2㎞ 내외 거리에 기흥호수공원과 영통체육문화센터, 태광CC 등과 수원영통지구, 흥덕지구, 기흥역세권이 있어 자연과 문화, 쇼핑 및 레저 등의 인프라가 좋다.

아파트는 지하 5층~지상 26층 17개동 규모이며 전용면적 73~123㎡ 1679가구로 구성된다. 분당선 상갈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수원IC, 청명IC, 흥덕IC가 가까워 경부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42번 국도 이용이 수월하다.

효성·진흥기업은 16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지구 B2블록에서 별내신도시 최초의 테라스하우스인 '별내 효성해링턴 코트'의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단지 바로 앞에는 별가람초등학교가 있으며 별가람중학교와 별내1고(가칭)도 가까워 걸어서 통학할 수 있다.

또한 약 6만5000여㎡ 규모의 역사문화공원이 단지와 맞닿아 있고 덕송천과 체육공원, 근린공원도 단지와 가까워 녹지와 자연공간을 만끽할 수 있다.

단지는 307세대 규모며 용적률 90% 미만의 저밀도 주거단지로 설계돼 쾌적하다. 주택형은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전용 84㎡ 단일면적 8개의 타입으로 구성된다.

대우건설은 10월 고양시 삼송지구 주상복합용지 1블록 일대 '삼송 원흥역 푸르지오'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35~38층 4개동 규모이며 전용면적 기준 ▲72㎡ 66가구 ▲84㎡ 178가구 ▲91㎡ 206가구 등 451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김포 한강신도시 내에서는 이 달 두 개 단지가 분양다. 이랜드건설은 한강신도시 Ab-12블록에서 전용 72~84㎡로 구성된 전체 550가구의 복합단지 이랜드 타운힐스를 공급한다.

한신공영도 전용 59~84㎡형의 중소형으로 구성된 924가구 규모의 테라스타운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를 분양할 계획이다. 이달 Bc-08블록과 Bc-09블록에서 416가구를 선보이며 Bc-11블록과 Bc-12블록에서 508가구가 순차적으로 분양된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10월 용인·남양주·고양·김포시 주요 분양 물량

구분		단지명	전용면적(㎡)	가구수
용인	기흥구 영덕동	용인 기흥 효성해링턴 플레이스	73~123	1,679
	처인구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44~103	6,800
	수지구 성복동	성복역 롯데캐슬	84~99	2,356
남양주	별내지구 B2블록	별내 효성해링턴 코트	84	307
	다산신도시 B-6블록	다산신도시 반도유보라 메이플타운	82·84	1,085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S1블록	다산신도시 자연& e편한세상 자이*	59~84	1,685
고양	삼송지구 주상복합용지 1블록	삼송 원흥역 푸르지오	72~91	450
김포	한강신도시 Ab-12블록	이랜드 타운힐스	72~84	550
	한강신도시 Bc-08, Bc-09블록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	59~84	416

*는 11월 분양 자료 : 각 사

분양단신

25개 일반분양… 21일 내정가 공개입찰

GS건설 '역삼 자이' 상가

GS건설(대표 임병용)이 이달 서울 강남구 '역삼자이' 아파트 단지 상가를 분양한다. 상가는 강남구 역삼동 711-1번지 일대에 있으며 2016년 6월 준공 예정이다. 현재 분양사무소는 대치동 자이갤러리에 있다.

GS건설은 13일 역삼자이 상가는 지하3층 지상5층 55개 점포로 구성되며 이 중 조합원분을 제외한 25개 점포가 일반분양된다고 밝혔다.

21일(예정) 내정가 공개경쟁입찰 후 다음날인 22일 계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계약금 10%, 중도금 10%다. 잔금 80%는 준공 후 3개월까지 낼 수 있다.

한편 개나리6차를 재건축한 408가구 규모 역삼자이는 분양이 완료돼 내년 6월 입주에 들어간다.

서울 강남구 역삼자이 조감도. /GS건설

소형 위주… 서울 동남권 최대 복합업무단지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에코 문정'

현대건설(대표 정수현)은 이달 서울 송파구 문정지구 8-4블록에 '힐스테이트 에코 문정' 오피스텔 531실을 분양할 예정이다.

오피스텔은 지하 6층~지상 15층 1개동 전용면적 17~37㎡로 구성된다. 임차인 선호도가 높은 소형 평면 위주로 공급되며 복층형·테라스형 타입 등도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문정지구는 54만㎡ 규모에 법조타운 등 공공행정지원시설과 미래형 업무단지가 들어서는 서울 동남권 최대 규모의 복합업무단지다. 법조타운과 미래형 업무단지가 완공되면 문정역 일대는 상주인구만 약 3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힐스테이트 에코 문정 투시도. /현대건설

수직 증축 추진단지 매매가 '수직 상승'

'추진위' 단계 성동구 아파트 작년 4월比 1억원 이상 껑충

"주민간 리모델링 찬반 분분 시세차익 노린 진입 주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값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추진 단지 중 일부는 최근 1년 새 20% 이상 몸값이 뛰는 등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수익 기대감이 고스란히 시세에 반영됐다.

13일 부동산114(대표 이구범)에 따르면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2013년 허용계획이 발표되기 전 주변시세와 비슷한 가격 흐름을 보이다 같은 해 하반기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한 기대감이 시세에 반영되기 시작해 지난해 6.18%, 올해 8.19%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같은 시기 수도권 평균이 ▲2014년 2.21% ▲2015년 4.36%인 점을 감안할 때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평균시세 대비 2~3배나 몸값이 뛴 셈이다.

개별 단지의 매매가를 보면 상승폭은 더욱 두드러진다.

현재 리모델링 '추진위' 단계인 서울 성동구 옥수동 '극동' 아파트는 지난해 4월 25일 대비 4500만원~1억500만원 상승해 최고 27.63%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 강서구 가양동 '한강', 양천구 신정동 '쌍용', 강남구 개포동 '대치·대청'은 매매가가 4500만~1억원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추진위' 단계인 성남시 정자동 '정든우성' 전용면적 48.84㎡는 5500만원 상승해 20.95%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군포시 '세종주공6단지', 수원시 '동신3차', 안양시 '목련 대우·선경·우성3단지' 아파트는 2250만~6000만원 가량 매매가가 올랐다.

일각에서는 리모델링 단지의 단기간 시세 상승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따른 기대감으로 진입한 수요층도 상당하지만 지은 지 15~20년된 아파트단지는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수요도 상당해 리모델링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도 많다"며 "리모델링 추진과 관련돼 주민들 사이의 찬반 의견이 분분해져 사업추진의 불확실성도 덩달아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과거 성공사례가 많은 재건축사업과 달리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관련 법 시행 초기여서 수익성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리모델링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급등한 단지들의 경우라면 기대감이 실망으로 바뀌는 시점에 '숨 고르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단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규 진입은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3년 4·1대책을 통해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계획을 최초 발표한 이후 지난해까지 관련법을 정비하고 같은해 4월 25일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전면 허용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가구수 증가분은 기존 가구수의 15% 이내에서 가능하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만 수직증축을 허용했다.

/박상길 기자

수도권 리모델링 추진단지 매매가격 변동률 (단위 :%)

1~12월 누적 기준. 2015년은 1~10월 누적. 자료 : 부동산 114

악재 딛고 하루 방문객 9만명… 절반의 성공

롯데월드타워 전경. /롯데물산

르포 '개장 1주년' 제2롯데월드몰

메르스 등 회복…샤넬 등 명품 브랜드엔 고객 북적
두시간에 9600원… 비싼 주차 요금 문제는 여전

개장 1주년을 앞둔 13일 오후 방문한 서울 송파구 잠실 제2롯데월드. 방문객 수는 메르스 사태 때보다 많이 회복된 듯 했다. 에르메스, 샤넬, 루이뷔통 등 명품 브랜드가 들어선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내부는 제법 방문객으로 북적였다. 하지만 실제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일부 매장 직원은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매장 밖에서 지나가는 방문객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또 애꿎은 매장 제품만 이따금씩 들어 보이곤 했다.

주차 예약제와 비싼 요금으로 논란을 빚은 뒤 규제가 완화된 주차장은 어떤지 둘러봤다. 지하 3층 주차장은 제법 차들이 많았지만, 일부 구역은 1~2대만이 넓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4층은 텅텅 비어 있어 스산한 느낌마저 든다.

롯데물산(대표 노병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오픈 당시 롯데월드몰 방문객은 하루 평균 10만명 수준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를 겪은 6월 7만 6000여 명에서 7~8월 9만400여 명까지 늘었지만 9월에는 주차 문제 등으로 8만2000여 명 수준으로 줄었다. 롯데물산은 10~12월 예상 방문객 수를 8만8000여 명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차장 이용 차량은 6월 440여 대에서 7월 1740여 대, 8월 2510여 대까지 늘었다가 9월 1880여 대까지 감소했다. 8월은 휴가철과 아이들 방학 등으로 주차대수가 소폭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달 12일 기준으로 평일 평균 1600대 가량만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다. 10~12월은 2200여 대가 주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차장 이용객이 많지 않은 이유는 여전히 비싼 요금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롯데물산은 분석하고 있다.

롯데물산 관계자는 "사전예약제 폐지 등 규제 완화로 미리 예약을 해야 주차할 수 있는 불편은 해소됐지만 10분당 800원(오후 8시~10시 200원)의 주차 요금과 쇼핑몰 이용 후 주차 할인이 적용 되지 않는 점 등이 방문객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롯데월드몰의 10분당 주차요금은 800원. 2시간 짜리 영화를 보면 주차요금으로 영화 1편 요금에 육박하는 9600원을 내야 한다.

영화를 본 뒤 식당에 들르거나 쇼핑을 해도 주차요금 할인혜택은 제공되지 않는다. 롯데월드몰 주차 4시간이 지나면 2만원 이상의 주차요금을 내게 된다.

불합리한 주차요금 체계를 개선해 주차요금 감면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롯데로서는 서울시가 해법을 쥐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차 문제는 일대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해왔다"며 "현재 주차장은 "일부 오픈된 공간만을 위한 곳이 아닌 전체 롯데월드몰을 위한 곳이다. 주차 문제는 방문객의 편의와 일대 교통 문제 등을 고려해 최대한 다양한 방면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복합쇼핑몰 입점시 지역상권 초토화"

상인연합회, 국토법 개정안 토론회

매출 46% 감소…상권 슬럼 현상 심각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유통재벌 그룹의 유통시장 독과점 형태인 복합쇼핑몰과 프리미엄아울렛이 비정규직을 남발하고 지역상권의 독점에 따른 중소상인 시장 퇴출 등 지역 경제를 심각하게 붕괴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벌복합쇼핑몰·아울렛 출점 규제를 위한 국토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상인연합회는 "규모가 보통 1만㎡ 이상인 복합쇼핑몰와 아울렛이 입점하면 인근 10㎞ 이상 상인평균 매출은 46.5% 하락한다"며 "상인 및 시민 단체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국내 유통시장의 상징인 대형마트는 이미 포화상태"라며 "여기에 기업형 슈퍼마켓(SSM)까지 더해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중소상인이 설자리는 줄어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 대형마트와 SSM이 늘자 유통 대기업 사이에서는 새로운 판로를 찾는다는 명분 하에 규모와 영업 형태를 대폭 확장한 복합쇼핑몰 입점을 앞다퉈 유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복합쇼핑몰 주변 소매점의 매출이 평균 46.5%(연평균 약 1억6000만원)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식업종의 경우는 79%가 감소했고, 의복신발가죽제품은 53%, 개인서비스업 42%, 이·미용업 38% 순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패션업종 중소기업 202개를 대상으로 '대기업아웃렛 입점에 따른 지역상권 영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대기업아웃렛 입점 후 인근 패션업종 관련 중소기업 84.2%의 매출이 감소했다.

대기업아울렛 입점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85.2%로 높았고 대기업 아울렛의 상권독점에 따른 우려는 66%, 지역상인퇴출 27%등의 답변이 나오면서 응답자의 40.1%가 정부차원의 대기업 아울렛 규제를 요구했다.

상인들은 "지자체와 유통 대기업의 주장처럼 복합쇼핑몰로 인한 주변 상권과의 시너지가 나기는 커녕 오히려 인근 상권이 슬럼화되는 현상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합쇼핑몰 규제 방안으로 등록제와 입점예고제, 입점단계에서 사후적 규제가 아니라 도시계획 단계에서의 사전적 규제 등을 제안했다. /박상길 기자

홈플러스, 300여 종의 와인 할인행사

홈플러스는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영등포점, 합정점, 월드컵점, 잠실점 등 40개 점포에 한해 약 300여종의 와인을 40~70% 할인 판매하는 '와인장터'를 진행한다. 보르도 1등급 그랑크뤼 등 프리미엄 와인을 40~70% 할인 판매하고, 약 300여 종의 와인을 4900원부터 60만원대까지 가격대별로 다양하게 선보인다. /홈플러스

'통 큰 롯데' 택시기사 사고 대신 변상

고령 기사가 변상하기엔 부담

외제차 손실에 5억원 대납

롯데호텔(대표 송용덕)이 호텔 내 고급차량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모범택시 기사의 개인 보험한도를 초과한 모든 배상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지난 10일 모범택시 기사 서 모씨(75·남)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주차장에 진입하다 고급차량 5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피해차량은 포르셰 911 카레라 4S와 파나메라 터보를 포함한 에쿠스 리무진 1대, 그랜저 1대, 벤츠 1대로 서씨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은 최대 5억원 가량이다.

당시 서씨는 급발진이 사고의 원인이라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서씨의 과실로 드러났다. 사고를 낸 서씨가 가입한 개인택시공제조합 종합보험의 대물배상 한도는 1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롯데호텔에 따르면 송용덕 롯데호텔 사장은 "고령 기사인 서씨가 사고 전체를 변상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개인 보험액을 제외한 모든 배상금액을 호텔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롯데호텔의 이번 대응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대인배 선행'과 비교되고 있다.

지난해 2월 고령의 개인택시 기사가 서울 중구 호텔신라 본관 현관으로 돌진해 호텔 측에 약 2억원의 피해를 입혔으나 이 사장은 모든 배상액을 탕감해주고 택시기사의 병문안을 갔었다.

/김성현 기자 minus@

GS25 '신분증 감별기' 도입

청소년 술·담배 구매방지 앞장

신분증 위변조 검사기. /GS25

GS25(대표 허승조)는 '신분증 위변조 감별시스템'(이하 감별시스템)을 도입, 청소년 담배·술 구매방지에 앞장서겠다고 13일 밝혔다.

이날까지 2000여 점포에 감별 시스템 설치를 완료한 상태다. 감별 시스템의 고객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가려 낼 수 있는 기기로 고객의 신분증을 스캐너에 넣으면 1차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의 엄지손가락을 인식기에 대면 지문을 통해 신분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GS25는 위변조 여부 확인 후 기록이 남지 않도록 감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직영점을 통해 테스트를 거친 후 가맹점으로 감별 기기 설치를 확대했다. /김성현 기자

파리바게뜨, 멘디니 디자인 '한정판 머그컵' 선봬

1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디자인 거장 알레산드로 멘디니가 SPC그룹과 협업해 만든 노벨티 제품들을 어린이 모델들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SPC그룹은 창립 70주년을 맞아 멘디니와 파리바게뜨 등 SPC주요 브랜드를 특유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머그컵, 유리컵, 우산, 수첩, 휴대전화케이스 등을 선보였다. 파리바게뜨를 비롯한 SPC 각 브랜드 매장에서는 창립 행사기간 1만원 이상 제품을 구매하면 멘디니가 디자인한 한정판 머그컵(1만원)을 2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SPC그룹

마트 화장품샵, 주부공략 통했다

3040 겨냥 고기능성 전진배치 입소문 타고 프리미엄군 인기

화장품 브랜드 매장들이 대형마트를 찾는 30~40대 주부들로 톡톡한 재미를 보고 있다.

20대 젊은 층의 접근성이 높은 로드숍 매장의 경우 2만~3만원 대 제품이 인기를 끈다면 마트 내 매장은 30~40대 주부를 중심으로 4만~6만원 대 고가 라인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 467개의 매장을 갖고 있는 더페이스샵의 마트 내 인기 제품은 프리미엄 한방 화장품이다.

대표 제품은 4만8000원 짜리인 '명한 미인도 천삼송이자생크림'과 5만2000원인 백삼콜라겐 진주환 등이다. 이들 제품은 프리미엄 원료를 고농축으로 담은 크림으로 기존 제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지만 주부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더페이스샵은 마트 내 매장의 고객 대부분이 주부인 점을 고려해 30~40대 이상의 여성에게 필요한 고영양, 고기능성의 스킨케어 제품들을 중심으로 매장을 구성하고 있다.

마트에서만 296개의 매장을 운영 중인 네이처리퍼블릭도 고영양, 고기능성의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율이 높다.

왼쪽부터 더페이스샵 '명한 미인도 천삼송이 자생크림', 이니스프리 '꽃송이버섯 바이탈 라인', 네이처리퍼블릭 '진생 로얄 실크 워터리 크림'.

인기 제품은 6만6000원의 '진생 로얄 실크 워터리 크림'이다. 순도 99% 금과 6년근 고려 홍삼 등으로 만든 이 제품은 미백과 주름개선 기능의 프리미엄 크림으로 마트에서 인기리에 판매 되고 있다.

또 매장도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주부들에 맞춰 운영하고 있다. 1+1 프로모션 품목 등 실속있게 구입 가능한 제품들은 별도로 만들어 소비자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262개의 마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니스프리는 올해부터 마트를 이용하는 주부를 타깃으로 전용 상품을 선보였다.

대표 상품은 '꽃송이버섯 바이탈 라인'이다. 이 라인의 세럼과 크림은 4만원과 5만원의 비교적 고가이지만 주부들의 피부 고민인 안티에이징에 도움을 준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79개의 마트 매장을 갖고 있는 미샤도 7만원대의 타임레볼루션 베스트셀러 2종세트가 인기리에 판매중이다. 미샤는 마트 내 주부 소비자를 공략하기 위해 최근 프리미엄 한방 라인 '미사(美思) 초(超)공진'을 선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로드샵의 경우 유행에 민감한 20대 젊은층이 주요 고객이라면 마트는 30대 이상의 주부층이 장을 보면서 편안하게 본인들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것 같다"며 "마트의 경우 구매연령 폭이 높아진 만큼 매장 구성이나 직원이 응대하는 서비스 등도 별도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세계식량가격지수, 18개월 만에 상승세 전환

20년 만에 최악의 엘니뇨 현상이 발생하면서 하락세를 나타내던 식량가격지수가 상승했다.

12일(현지시간)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식량가격지수는 18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 전월대비 1.2p 오른 156.3p를 기록했다.

올해 기상 관측 역사상 두 번째로 강력한 엘리뇨 현상으로 인한 설탕 공급량 감소와 뉴질랜드의 유제품 생산량 축소 등의 요인이 겹치며 식량가격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설탕가격은 지난 3주 동안 31% 상승했고, 유제품은 36%, 팜오일은 13.1%, 밀은 6.1% 치솟았다. 반면 곡물과 유지류, 육류 가격은 전월 대비 소폭 하락했다.

특히 아시아지역 국가들은 건조한 날씨에 곡물 생산량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다. 베트남의 커피코코아협회(Vicofa)는 올가을 커피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태국쌀수출협회는 쌀 수확량이 15~20%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AK몰 '모바일 심야책방' 오픈 30만권 판매

AK플라자(대표 정일제)의 온라인쇼핑몰 AK몰은 리브로와 제휴를 맺고 도서 30만여 권을 판매하는 온라인 서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AK몰은 도서 신규 입점을 기념해 15일까지 '모바일 심야책방'을 열고 매일 오후 8시부터 새벽 6시까지(15일은 자정까지) 할인혜택 등을 제공한다.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메뉴 52', '말의 힘-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되게 하는', '제인 오스틴의 연애론' 등 베스트셀러를 포함한 추천 도서를 10% 할인 판매한다. 모바일로 도서를 주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5% 추가 적립금을 준다.

미스터피자, 中서 3분기 연속 흑자 '고공행진'

올 매출 662억 전년比 84%↑ 중상류층 겨냥한 전략 적중

MPK그룹(회장 정우현)의 미스터피자가 중국에서 3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13일 MPK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1~9월(3분기 누계) 중국에서 전년동기 대비(360억원) 84% 증가한 662억원(3억5830위안)의 매출을 기록, 15억원의 경상이익을 달성했다. 2000년 중국 진출이래 지난 1분기 첫 흑자(2억5000만원) 전환에 이은 3분기 연속 흑자 달성이다. 매출 역시 3분기에 이미 지난해 중국 연간 매출인 500억원을 32%(162억원) 이상 초과했다.

특히 미스터피자 상하이법인(미스터피자진잉찬음관리상하이유한공사-MPS)은 지난해 84억원보다 3배 증가한 25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베이징법인(베이징미스터피자찬음관리유한공사-MPB) 역시 409억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보다 133억원 증가했다.

회사 측은 이 같은 성장에 대해 베이징, 상하이뿐 아니라 난징, 태원 등 2·3선 도시에서도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도심 대표 쇼핑몰에 우선 입점해 상대적으로 경기의 영향을 적게 받는 중상류층을 겨냥한 전략이 적중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2선 도시인 난징시에 출점한 5개 점포에서 매장당 월평균 2억 1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태원에 오픈한 2개 점포에서도 매장당 월평균 2억5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MPK는 올 연말까지 미스터피자 매장을 중국에 120개까지 오픈해 지난해 500억원 대비 2배 늘어난 1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MPK 관계자는 "중국의 경기 침체로 매출 하락이 우려됐으나 현지인 입맛에 맞는 제품개발과 현지 마케팅전략을 통해 중국을 대표하는 피자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오리온 감자스낵 날개… 1년간 매출 22%↑

오리온(사장 이경재)은 '포카칩'을 포함한 감자스낵(사진)의 최근 1년 매출을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 늘렸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출시한 '포카칩 스윗치즈'를 포함해 '오!감자', '스윙칩' 등 감자스낵 브랜드의 신제품들도 좋은 반응을 얻으며 감자스낵 연간 매출액이 3000억원을 넘어섰다.

오리온은 감자스낵이 2030 성인 세대의 관심을 끌며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편의점에서 포카

칩은 스윗치즈 출시 이후 닐슨코리아 기준 최근 1년간 판매액이 전년 동기대비 68% 급증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성인들이 감자스낵을 비롯한 과자의 새로운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2030세대를 주요 타깃으로 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주류 '클라우드' 출시 1년… 맥주시장 삼켰다

고객만족도 맥주부문 1위

롯데주류(대표 이재혁)는 '2015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조사(KCSI)'에서 맥주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4월 '클라우드'로 맥주 산업에 진출한 지 약 1년 만에 거둔 성과다.

KCSI(Korean Customer Satisfaction Index)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에서 1992년 국내 최초로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측정 방법론을 개발해 발표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고객만족지수다.

전국 약 1만20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롯데주류는 총점 84.8점을 기록하며 전반적인 만족도와 맥주의 향, 재구매 의향 등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은미 기자

공항철도 '한글날' 하루 전날 이용객 신기록

하루 23만명 탑승… 연휴효과 톡톡

황금연휴 해외여행객 급증
역주변 다양한 축제도 한 몫

공항철도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을 찾은 이용객들이 출국수속을 하고 있다.

"도심에서 쉽게 출국수속도 가능하고 원스톱으로 공항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만난 이영성(47)씨는 "운전대를 놓고 가족들과 대화하며 공항까지 편안하게 와 좋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글 날' 연휴 전날인 지난 8일 공항철도가 1일 23만6907명을 수송하며 개통 이후 하루 최다 이용객수 기록을 갱신했다. 황금 연휴(8일~11일)를 맞아 가족과 친지, 친구 등과 해외 여행을 떠난 이용객수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13일 공항철도측에 따르면 "이전 1일 최다 이용객은 석가탄신일 연휴 전날인 지난 5월 22일 23만6734명이었다"며 "지난 8일 서울역에서 직통열차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한 여행객 수요가 전주 대비 약 29.5%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항철도 주요 노선 주변에서 열리는 다수의 축제와 행사도 최다 이용객수 기록 경신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지난 8일 공항철도 검안역은 인근(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 매립지내)에 위치한 드림파크에서 열린 '가을나들이 행사'를 찾은 내방객들이 몰리면서 철도 이용객수가 전주 대비 30%가량 늘었다.

내수 관광객을 공략한 홍보전략도 한 몫 했다. 인천공항으로 떠나는 해외여행객과 더불어 국내 수도권 관광객을 대상으로 연휴와 역 주변 축제, 각종 행사 등과 연계한 이용자 동선 정비와 SNS 홍보 등에 매진한 결과란 평이다.

이성희 공항철도 부사장은 "이번달은 국내에만 3000건 이상의 각종 행사가 열리는 시기"라며 "역 주변 행사장과 연계한 홍보 전략을 펼친 결과 일일 최다 이용객수 기록 달성에 성공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metroseoul.co.kr

관광公, 中 고소득 女心잡기 팔 걷어

VIP 고객 100여명 초청
고품격 방한상품 설명회

박정하 한국관광공사 베이징지사장이 지난 11일 베이징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방한 상품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베이징지사는 중국 최대의 국유상업은행인 중국공상은행과 공동으로 고소득 여성 VIP 고객 대상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지난 11일 베이징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중국공상은행 VIP 고객 100여명 초청해 방한 상품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소개된 중국공상은행 여성 VIP 고객 대상 고품격 방한 상품은 주로 중년층 여성 대상의 기미, 주름제거 등과 같은 미세 성형과 건강검진, 국내 인기 연예인 및 여성 VIP들이 애용하는 유명 스파, 미용실, 백화점 1대1 쇼핑 서비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특급 호텔 숙박·건강을 소재로 한 전통 한정식과 고급 막걸리 체험 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 4박 5일 일정으로 상품가격은 300만원대 이상이다.

이번 설명회에 초청된 여성 고객 100여명은 중국공상은행 플래티늄 카드 소지자들이며, 동 카드 발급을 위해선 은행 계좌에 현금 잔고가 최소한 1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현재 중국 전역에 약 150만장이 발급돼 있다.

공사는 이번 설명회 개최를 계기로 중국 전역 여성 VIP 고객 대상으로 상품 홍보·모객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달 중순에는 중국공상은행 관계자·VIP 여성 고객을 한국으로 초청해 상품 체험을 위한 팸투어를 진행한 바 있다.

박정하 한국관광공사 베이징지사장은 "국내 인기 연예인 및 여성 VIP들이 선호하는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국 여성 대상의 고품격 맞춤형 상품과 접목시키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준 기자

'허니버터칩 성공' 베일 벗는다

신정훈 해태제과 대표
성공 스토리 담은 책 발간

해태제과는 신정훈 대표가 허니버터칩 성공스토리를 담은 '허니버터칩의 비밀'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신 대표는 식품업계에서 단연 화제의 중심에 선 CEO다. 허니버터칩 하나로 감자칩 시장의 만년 꼴찌였던 해태제과를 일약 최강자로 변모시켰다. 올 7월에는 제과업계 최초로 과일맛 감자칩을 내놓아 또 한번 업계 주목을 끌었다.

신 대표는 서울대 경영학과와 MBA를 거쳤다. 하지만 허니버터칩의 비밀은 실제 업무 과정의 에피소드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담아 읽기에 편안하다. ▲허니버터칩의 출시를 놓고 이견이 팽배해 자칫 시장 선점을 놓칠 수 있었던 순간 ▲경쟁업체의 허니버터칩 유사제품 대응 ▲공장 증설 결정을 앞둔 최고 경영자로서 맞닥뜨린 고민 등 이론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고뇌를 진솔하게 담았다.

신정훈 대표는 "허니버터칩 신드롬은 어느 제과업체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일대 사건이었다"며 "허니버터칩 성공 DNA는 해태제과의 가장 큰 자산인 동시에 국내 제과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공유할 책임을 느껴왔다"며 출간 배경을 밝혔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예방·치료·식단… 유방암의 모든 것

이대여성암병원
23일 '핑크리본 건강강좌'

이대여성암병원은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이대목동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2015 핑크리본 유방암 건강강좌'를 진행한다.

핑크리본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건강강좌는 임우성(사진) 유방암·갑상선암센터 교수가 유방 건강 상식, 유방암 예방 및 치료, 유방암 환자의 식단 등을 주제로 강연한다. 강연 후에는 유방암 갑상선암센터 교수진이 환우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핑크리본 캠페인은 유방암으로부터 여성의 생명과 아름다움을 지키자는 취지로 개최되는 행사로 매년 한국유방암학회 주관 하에 진행되고 있다.

한편 이번 건강강좌는 유방암에 관심 있는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며 선착순 150명까지 고급 수건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문의 이대여성암병원 유방암·갑상선암센터(02-2650-5995) /유선준 기자

강강술래, 한우사골곰탕 반값 할인

22일까지 온라인·전화주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는 이달 22일까지 온라인쇼핑몰(sullai.com)과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온 가족 보양식 한우사골곰탕박스(500㎖/10팩/20인분)를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100% 한우로만 우려낸 강강술래 곰탕은 기력보충 및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줘 환절기에 이용하면 좋다. 또 냄비에 붓고 끓이거나 봉지째 데워먹을 수 있어 조리가 간편하며 레토르트 포장을 적용해 상온보관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강강술래는 같은 기간 야외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갈비맛 쇠고기육포박스(50g/10봉)를 4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상명대 김종희 대외협력부총장(오른쪽)이 12일 '동문 기증 작품전' 개막식에서 작품 설명을 듣고 있다.

상명대, 18일까지 동문기증 작품전

상명대(총장 구기헌)는 12~18일 서울 대학로 예술디자인센터에서 '동문 기증 작품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조형예술학과, 생활예술학과 동문들과 재직 교수 총 53명의 작품(150여점)이 전시되며 판매 수익금은 전액 학교의 발전기금으로 기부된다.

김종희 대외협력부총장은 "졸업 후에도 모교 사랑을 잊지 않고 전시회를 열어준 동문들께 감사 드린다"며 "사학 명문으로 도약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보답 하겠다"고 말했다.

애경, 치석·구취·잇몸, 맞춤케어 하세요

2080 어드밴스 치약 3종 출시

생활용품브랜드 애경(대표 고광현)은 '2080 어드밴스 치약' 3종을 13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치석케어, 구취케어, 잇몸케어 중 자신의 구강상태에 따라 선택해 집중관리 할 수 있다. 특히 스크럽, 쿨링 파워, 콜라겐 보호 기능의 각 에센스를 '2080 듀얼 테크놀로지' 기술로 적용해 기능과 효과를 극대화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2080 어드밴스 치약은 '2080 어드밴스 블루 치석케어'와 '2080 어드밴스 그린 구취케어', '2080 어드밴스 레드 잇몸케어' 3종으로 가격은 각각 120g에 3000원이다.

star bag

현역병 입대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은혁**이 13일 입대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은혁이 13일 오후 강원도 춘천 102 보충대로 입대했다"고 전했다. 은혁은 현역병으로 복무한다.

'히말라야' 12월 개봉

배우 **황정민, 정우** 등이 주연을 맡은 영화 '히말라야'(감독 이석훈)가 오는 12월 개봉을 확정했다. 히말라야 등반 중 생을 마감한 동료의 시신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엄홍길 대장의 실화를 그린 영화다.

29일 정규 11집 발표

가수 **신승훈**이 오는 29일 자정 정규 11집 '아이엠 앤 아이엠(I am/&I am)'으로 컴백한다. 이번 앨범은 9년 만의 정규앨범이자 데뷔 25주년을 기념하는 앨범이다. 두 개의 파트로 나눠 발매할 예정이다.

고준희·이시영과 한솥밥

배우 **이아현**이 고준희, 이시영 등이 소속된 제이와이드 컴퍼니에 새 둥지를 틀었다. 소속사 측은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넘나들며 사랑 받아온 이아현을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정규 7집 기념 공연

올해 데뷔 13주년을 맞이한 일렉트로닉 그룹 **캐스커**가 다음달 7일과 8일 이틀 동안 백암아트홀에서 단독공연 '그라운드(ground)'를 개최한다. 곧 발매될 정규 7집 앨범을 기념하는 공연이다.

운명 같은 보사노바의 흐름 속으로

보사노바 싱어송라이터 3집 플로잉 발표

나희경

운명 같은 음악이 있을까. 나희경(28)에게는 보사노바가 바로 그런 음악이다. 어릴 적 보사노바에 매료된 그는 보사노바를 직접 느끼며 체화하기 위해 무작정 브라질로 떠났다. 그리고 그 음악 여정은 지난달 발표한 세 번째 정규 음반 '플로잉(Flowing)'에 고스란히 담겼다. 보사노바 장르에만 머물지 않고 마음 가는대로 하고픈 음악을 담은, 제목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편안함을 담은 앨범이다.

나희경이 보사노바와 만난 것은 11세 시절이었다. 컴퓨터 음악에 관심이 많았던 소녀였다. 우연히 서점에서 만난 컴퓨터 음악 관련 서적을 통해 보사노바를 처음 접했다. 드럼도 배웠고 학교에서 동아리로 퓨전 밴드도 꾸리며 10대 시절을 보냈다. 음악은 나희경에게 처음부터 거스를 이유가 없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었다.

성인이 된 뒤 본격적으로 자신의 음악을 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나희경이 떠올린 것 또한 보사노바였다. 보싸다방이라는 팀을 꾸려 2010년 앨범을 냈다. 그러나 앨범 발매를 앞두고 나희경은 무작정 브라질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보사노바가 태동한 브라질에 "몸을 담지않고서는 얻지 못하는 무언가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사랑에 빠지면 아무 것도 안 보이는 것 같은 열망"이 그를 이끌었다. 그렇게 마음 끌리는 대로 찾아간 브라질에서 나희경은 동경해 마지 않았던 전설적인 보사노바 뮤지션과 만나며 음악적 교류를 이어갔다.

"이전에는 앨범마다 목표가 있었어요. 집은 보사노바의 뿌리를 느끼기 위해 보사노바의 고전들을 학습하다시피 한 앨범이었어요. 그 뒤에 발표한 미니앨범은 가요를 브라질 뮤지션들과 함께 재해석하는 작업이었고요. 2집에서는 보싸다방으로 발표한 곡을 브라질에서의 경험을 통해 다시 풀어냈고요. 하지만 이번 3집은 특별한 목표를 정하지 않았어요. 몸과 마음이 이끄는대로 해보면 보다 리얼한 무언가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 말처럼 나희경의 새 앨범 '플로잉'은 보사노바를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를 녹여낸 노래들이 수록돼 있다. 첫 번째 트랙인 '에스타테(Estate)'는 나희경을 브라질로 이끌었던 노래다. 타이틀곡인 '아까주(Acaso)'에서는 브라질 출신으로 라틴 그래미 시상식에서 여러 차례 수상한 바 있는 세계적인 뮤지션 이반 린스와 함께 했다. 볼레로에 탱고를 섞은 아방가르드한 '방랑' 등 자작곡도 2곡 수록돼 있다. 오는 31일에는 마포구 서교동의 웨스트브릿지에서 3집 발매 기념 콘서트도 한다.

> 10대 시절부터 보사노바 심취
> 브라질 전설적 뮤지션과 교감
> 3집, 마음이 이끄는대로 작업
> 편안한 음악으로 다가가고파

나희경에게는 '보사노바 싱어송라이터'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그러나 나희경은 자신이 "보사노바만 하는 사람이 아닌, 자연스럽게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로 소개되기를 바란다. 그것이 보사노바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보사노바는 브라질말로 '새로운 경향'이라는 뜻이에요. 처음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 보사노바 장르를 선보였을 때, 평론가들이 왈가왈부하자 '이 음악은 새로운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며 '본질을 보지 못한다'고 했대요. 그런 내용을 노래 '데사피나도(Desafinado)'에 담았고요. 장르의 편견을 깨부수는 새로운 음악이 곧 보사노바죠. 저도 그렇게 음악을 하고 싶어요."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싱어송라이터 '엘튼 존' 소극장 공연

내달 27일 '현대카드 큐레이티드' 개최

싱어송라이터 엘튼 존(사진)이 소극장 공연으로 내한한다.

엘튼 존은 다음달 27일 서울 이태원 현대카드 언더스테이지에서 '현대카드 큐레이티드(Curated) 엘튼 존'을 개최한다.

'현대카드 큐레이티드'는 독자적인 안목을 지닌 거장이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가진 아티스트를 선별해 언더스테이지 무대에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대형 공연장이 아닌 소극장 규모의 공연장에서 엘튼 존의 음악을 보다 가까이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엘튼 존은 1969년 '엠티 스카이(Empty Sky)'로 데뷔했다. 전 세계에서 2억5000만장의 음반 판매고를 세웠다. 지금까지 80여개국에서 3500회 이상 공연을 열었다. 영화 '라이온킹'의 테마송을 만들었으며 뮤지컬 '라이온 킹' '빌리 엘리어트' '아이다' 등의 음악 작업에도 참여했다.

엘튼 존은 이번 공연에서 '굿바이 옐로 브릭 로드(Goodbye Yellow Brick Road)' '캔들 인 더 윈드(Candle In The Wind)' '유어 송(Your Song)' 등 반세기 동안의 음악 인생을 아우르는 명곡들을 공연장 특성에 맞춰 특별하게 준비 중이다.

함께 내한하는 밴드 세션도 화려하다. 오랜 세월 호흡을 맞춰 온 데이비 존스톤(기타), 매트 비조넷(베이스), 킴 블라드(키보드), 존 마혼(퍼커션), 나이젤 올슨(드럼) 등과 함께 무대에 올라 최상의 사운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엘튼 존이 소극장 무대에 오르는 것은 데뷔 초기 시절을 제외하면 그 유례를 찾아보기가 힘든 희귀한 경우"라며 "이번 공연을 찾는 관객들은 가까이에서 엘튼 존 음악의 정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카드 큐레이티드 엘튼 존' 공연은 전석 스탠딩 공연이며 티켓 가격은 20만 원이다. 티켓은 오는 15일 오후 12시부터 인터파크에서 판매된다.

/장병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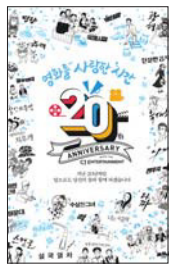
FashionN
매주 목요일 밤 9시
깐깐한 그녀들의 리얼검증 프로젝트
follow me 6
더 강력해진
그녀들이 온다!
지나 / 아이비 / 황승언
t.cast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CHAMP
FOX
FOX life
FX

CJ E&M 20주년 특별전 '살인의 추억' 등 20편 재개봉

영화 '살인의 추억' '타짜' '박쥐' 등을 개봉 당시 필름으로 다시 만날 수 있게 됐다.

CJ E&M은 영화 산업 진출 20주년을 맞아 개최하는 'CJ엔터테인먼트 20주년 특별기획전'의 상영작 20편을 12일 공개했다.

최종 선정작은 2003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부터 2014년 12월 개봉한 윤제균 감독의 '국제시장'까지 다양한 장르의 작품이 총망라됐다. '해운대' '설국열차' '명량' '친절한 금자씨' '박쥐'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등 화제작들이 상영작에 이름을 올렸다.

'CJ엔터테인먼트 20주년 특별기획전'은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CGV 압구정에서 열린다. 티켓 예매는 CGV 압구정 현장과 CGV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장병호 기자 solanin@

'교향곡 3대 거인'의 가을 교향곡

시벨리우스 탄생 150주년 기념음악회

23일 예술의전당서 다섯번째 무대
가장 사랑받는 교향곡 2번·7번 연주

예술의 전당이 시벨리우스 탄생 150주년을 기념해 기획한 '시벨리우스 사이클(교향곡 전곡 연주)' 다섯번째 무대가 23일 오후 8시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펼쳐진다.

총 6회로 구성된 이 시리즈는 '건반 위의 진화론자' 김대진과 수원시립교향악단이 세계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외 피아니스트들과 협연하는 연주 프로그램이다. 지난 5월 시작돼 11월까지 이어지고 있다.

23일 공연에서는 시벨리우스 교향곡 중에서도 가장 사랑받는 교향곡 제2번과 시벨리우스가 남긴 마지막 교향곡 제7번을 연주한다.

말러, 브루크너와 더불어 '교향곡의 3대 거인'으로 칭송받는 시벨리우스는 1930년대 영국과 유럽 음악계에서 대대적인 붐을 일으켰던 위대한 작곡가로 평가받고 있다. 탄탄한 형식미와 세련된 구성, 풍성한 아이디어의 유기적인 연결 등이 만들어 낸 시벨리우스 특유의 내면적 분위기와 감성이 특징이다. 당대

시벨리우스. /예술의전당

누구보다 독창적인 기법을 사용했다는 명성을 가진 시벨리우스는 북유럽의 고요하면서도 차분한 정취와 서늘한 미학을 작품 속에 담았다.

가장 인기있는 시벨리우스 교향곡인 제2번은 교향악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제1번 교향곡에 비해 훨씬 분명하게 시벨리우스만의 개성이 나타난다. 1900년부터 1902년에 걸쳐 작곡돼 1902년 헬싱키에서 작곡가 자신의 지휘로 초연됐다.

일부에서는 이 곡을 그의 '전원교향곡'이라고 평하는 사람도 있다. 북유럽의 민요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전원적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의 유명한 교향시인 '핀란디아'와 함께 시벨리우스를 대표하는 곡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4악장의 선율은 웅장하고 유려하여 이 곡을 처음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귀에 쏙 들어온다.

시벨리우스 최후의 교향곡이자 단악장으로 된 교향곡 제7번은 1924년에 완성돼 같은 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자신의 지휘로 초연됐다.

형식상으로도 매우 이례적으로 고전적인 4악장제의 교향곡 형식에서 벗어나 단악장으로 되어 있는 곡이기도 하다. 일종의 교향시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자유롭고 특수한 양식이다. 개개의 주제, 동기, 악절 등은 지극히 밀접하게 결합돼 하나의 악장 속에 안단테부터 프레스토까지 모든 표현을 망라하고 있다. 비교적 작은 편성이지만 훌륭한 악상, 매력적인 선율과 화성법, 참신한 악곡 구성 등 모두가 빈틈없이 짜여진 주옥같은 교향곡을 형성하고 있다.

김대진은 최정상의 피아니스트에서 지휘자로 다시 한 번 진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염지은 기자 senajy7@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무슬림 남편과 외식하기

◆ KBS2 '내편, 남편'

오후 8시 55분

무슬림이기 때문에 술을 비롯해 먹을 수 없는 요리가 많은 무함마드 사킵씨의 아내는 남편의 까다로운 식성 때문에 외식을 포기한 상태다. 그러나 남편이 거하게 맛있는 식사를 하고 싶다는 말에 외식을 결심한다. 여러 메뉴를 골라 남편에게 추천하지만 역시나 종교적인 이유로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 결국 아내는 남편을 데리고 다양한 메뉴가 존재하는 뷔페를 찾는다. /정리=하희철기자 hhc@

◆ MBC '라디오스타'

오후 11시 15분

아역 출신 배우 이민호는 액션스타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증명하기 위해 MC 김국진을 상대로 한국과 중국의 액션 차이점에 대한 비교 시범을 보인다.

◆ JTBC '연쇄쇼핑가족'

오후 10시 50분

'장난남계의 얼리어답터'로 손꼽히는 가수 이현우가 최근 품귀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한 완구 제품의 숨은 정보를 밝힌다. 장난감 대란에 얽힌 웃지 못할 에피소드도 공개된다.

◆ tvN '수요미식회'

오후 9시 40분

집 떠난 입맛도 돌아오게 하는 대한민국 대표 별식 '국수'를 주제로 미식 토론에 나선다. 개그우먼 김효진은 국수 한 그릇을 위해 20만원의 차비를 들여야 했던 사연을 공개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4일(수)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FOODTV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11:55 안녕 우리말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재)	05:00 MBC 뉴스 05:1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스페셜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내 딸, 금사월 (재)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웃찾사 스페셜	06:00 수상한 미용실 살롱 드림(재) 07:00 아웅다웅 동화나라 시즌2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0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0:15 히든싱어 4 (재) 11:55 비정상회담 (재)	05:50 천기누설 스페셜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엔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알토란 (재) 11:5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05:00 집밥 백선생 (재) 06:30 삼시세끼 어촌편 (재) 08:10 응답하라 1994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집밥 백선생 (재) 11:50 명단공개 (재)	05:30 루이의 니하오 키친 06:00 귀농 다큐 '살어리랏다' 06:30 나를 바꾸는 30분 07:00 찾아라! 팔도 맛지도 07:30 식신로드 시즌2(재) 08:30 테이스티 월드 09:00 푸드 헌터 09:30 알뜰 장보기 정보 (재) 10:00 세기의 기행 판소리의 맛과 멋 11:00 명물인생 11:30 Chopped Canada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0 별별가족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녹화중계 국회 대정부 질문 15:55 오늘의 경제 16:05 이웃집 찰스 (재)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3:00 다큐멘터리 3일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청춘FC 파이널 매치	12:00 MBC 정오뉴스 12:20 엄마 (재) 14:30 똑?똑! 키즈스쿨 15:00 MBC 뉴스 15:10 마법천자문 15:40 경제매거진 M 스페셜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재) 14:00 영재발굴단 (재) 15:00 SBS 뉴스 15:10 SBS 이슈 인사이드 16: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16:30 꾸러기 탐구생활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바이클론즈	13:15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50 뉴스&이슈	12:50 현장토크쇼 TAXI (재) 13:5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5:40 두번째 스무살 (재) 17:00 두번째 스무살 (재)	12:30 식신로드 시즌2 (재) 13:30 스타 뉴스 14:30 한국의 맛 시즌2 15:00 세기의 기행 판소리의 맛과 멋 16:00 필로교수의 쿠킹콘서트 한우예찬 (재) 17:00 활력 충전 건강이 보인다 (재) 17:30 알뜰 장보기 정보 (재)
18:00 6시 내고향 18:50 4000회 특집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9:00 KBS 뉴스 7 19:30 사람과 사람들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3:00 KBS 뉴스라인 23: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18:00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9:50 다 잘될 거야 20:30 2TV 저녁 생생정보 2 20: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22: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23:10 추적 60분 24:10 스포츠 하이라이트 24:35 세상의 모든 다큐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2안) KBO 준PO 4차전 19:15 위대한 조강지처 / (2안) 19:55 MBC 뉴스데스크 / (2안) 20:55 딱 너 같은 딸 / (2안) 21:30 리얼스토리 눈 / (2안) 22:00 그녀는 예뻤다 / (2안) 23:10 라디오스타 / (2안) 24:30 MBC 뉴스 24 24:5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18: 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영재발굴단 22:00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23:15 한밤의 TV연예 24:35 나이트라인	18:20 비정상회담 (재) 19:40 연금복권 520 19:55 JTBC 뉴스룸 21:30 유자식상팔자 22:50 연쇄쇼핑가족 24:15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엄지의 제왕 (재) 21:50 나는 자연인이다 2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24:20 속풀이쇼 동치미 (재)	18:20 집밥 백선생 (재) 19:40 고성국의 빨간 의자 20:40 코미디 빅리그 (재) 21:40 수요미식회 23:00 집밥 백선생 (재) 24:20 비밀독서단 (재)	18:00 Mystery Dinners 19:00 집밥의 여왕 20:30 최현석의 크레이지타임 (재) 21:00 Roadtrip With G.Garvin 21:30 Andy Bates : American Street Feasts 22:00 Chopped Canada 23:00 오감도 (재) 24:00 식신로드 시즌2 (재)

PGA 투어 내일 개막… '쩐의 전쟁' 돌입

<2015-2016시즌>

개막전 프라이스닷컴오픈 총상금 600만 달러 걸려
노승열·최경주 등 출전 '골프황제' 매킬로이 참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2015-2016시즌이 15일 개막한다.

이날 개막전인 프라이스닷컴오픈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나파의 실버라도 컨트리클럽 노스코스(파72·7203야드)에서 펼쳐진다. 대회 총상금은 600만 달러(약 68억원)가 걸려 있다.

지난해 배상문(29)이 이 대회에서 우승해 한국 팬들에게 친숙한 대회다. 그러나 올해 대회에는 입대 절차를 밟고 있어 출전하지 못한다. 아울러 이 대회에는 '신·구 골프 황제'인 타이거 우즈(미국)와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모두 나올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허리 수술을 받은 우즈는 참가하지 못한다. 세계 랭킹 15위 이내 선수 중에서는 3위인 매킬로이와 7위 저스틴 로즈(잉글랜드), 12위 브룩스 켑카(미국), 15위 마쓰야마 히데키(일본) 등 4명이 출전한다.

한국 선수(교포 선수 포함)는 노승열(24·나이키골프), 최경주(45·SK텔레콤), 김시우(20·CJ오쇼핑), 김민휘(23), 이동환(27·CJ오쇼핑), 대니 리(25), 케빈 나(32), 제임스 한(34), 존 허(25), 마이클 김(22), 강성훈(28·신한금융그룹), 루카스 리(28), 박성준(29), 리처드 리(28) 등이 나선다.

이들은 각자 대회 출전 우선순위에 따라 나갈 수 있는 대회가 정해진다. 가령 지난 시즌 2부 투어인 웹닷컴 투어 상금 랭킹으로 올해 PGA 투어 출전권을 획득한 김시우, 이동환, 마이클 김, 강성훈 가운데 상금 순위가 높은 김시우, 이동환, 마이클 김은 이번 대회에 나오지만 강성훈은 대기자 명단에만 포함된다.

로리 매킬로이

노승열

15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2015-2016시즌 PGA 투어가 2016년 9월까지 진행된다.

올해 11월 중순까지 투어 대회가 이어지다가 약 2개월간 휴식기를 갖고 2016년 1월 현대 챔피언스 토너먼트로 투어가 재개된다.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마스터스는 내년 4월7일 막을 올린다. 이후 6월 US오픈, 7월 브리티시오픈과 PGA 챔피언십 등이 열린다. 원래 8월 중순에 열리던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 PGA 챔피언십은 같은 기간 열리는 올림픽 기간을 피해 7월 말로 앞당겨졌다. 8월 마지막 주엔 더 바클레이스부터 페덱스컵 플레이오프가 시작하고 9월25일 투어 챔피언십을 끝으로 2015-2016시즌이 종료된다.

/하희철 기자 hhc@metroseoul.co.kr

추신수, 빛바랜 3안타… 텍사스, 4차전 敗

ALDS 내일 운명의 5차전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가 포스트시즌에서 처음으로 멀티 히트(한 경기 안타 2개 이상)를 쳤으나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추신수는 13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5전3승제) 4차전에서 2번 타자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3안타, 2득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텍사스는 4-8로 패해 홈에서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에 진출할 수 있는 티켓을 놓쳤다.

이날까지 포스트시즌 통산 5경기에 출전한 추신수가 멀티 히트를 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시리즈에서 타율 0.235(17타수 4안타)를 치는 등 타율 0.250(20타수 5안타), 홈런 1개, 타점 2개, 5득점을 기록 중이다.

추신수가 13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아메리칸리그 디비전시리즈(ALDS) 4차전에서 안타를 친 뒤 베이스를 돌고 있다. /AFP 연합뉴스

전날 4타수 무안타로 경기를 마친 추신수는 이날 1회 첫 타석에서 우전 안타로 포문을 열었다. 3회 투아웃 주자없는 상황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안타를 터뜨렸다. 이후 투수의 폭투를 틈 타 득점했다.

2-8로 뒤진 8회에도 선두 타자로 나와 내야 안타를 친 뒤 두 번째 득점에 성공했지만 승패를 뒤집지는 못했다.

2승 후 2연패를 당한 텍사스는 15일 토론토와 최종 5차전을 치른다. /하희철 기자

'박인비 vs 리디아 고' 인천서 재격돌

KEB 하나은행 챔피언십

세계랭킹1위·상금왕 겨뤄

박인비(27·KB금융그룹)와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18)가 이번주 인천에서 격돌한다.

두 선수는 15일부터 나흘간 인천 스카이72 골프장(파72·6364야드)에서 열리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KEB하나은행 챔피언십에서 세계랭킹 1위와 상금왕 자리를 놓고 맞붙는다.

현재 세계랭킹은 박인비가 1위(12.78점)이지만 지난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사임다비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리디아 고가 근소한 차이로 2위(12.52점)에 올라 바짝 추격 중이다.

LPGA 투어 상금랭킹에서도 박인비가 234만4266 달러(약26억 8000만원)로 1위지만 리디아 고가 단 1만2216 달러 뒤진 233만2050 달러로 뒤쫓고 있다.

박인비

리디아 고

총상금 200만 달러, 우승 상금 30만 달러가 걸린 이번 대회에서 두 선수의 결과에 따라 세계랭킹과 상금 순위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박인비는 지난 8월 브리티시여자오픈에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뒤 주춤하고 있다. 반면 리디아 고는 지난 3차례 대회에서 우승 2번과 준우승 1번을 차지할 정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하희철 기자

스페인, 유로 2016 본선 진출

우크라이나에 1-0 승리

스페인이 우크라이나를 힘겹게 이기고 조 1위로 2016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 본선 진출에 성공했다.

스페인은 13일(한국시간) 우크라이나 키에프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로 2016 C조 조별리그 10차전에서 우크라이나를 1-0으로 꺾었다. 이로써 9승1패(승점 27)를 기록하며 조 1위로 예선을 통과했다. 6승1무3패(승점 19) 조 3위의 우크라이나는 플레이오프를 거치게 됐다.

스페인은 전반 22분 왼쪽 측면에서 올린 티아고 알칸타라의 크로스를 마리오 가스파르가 헤딩슛으로 연결하며 결승골을 뽑았다. 이후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격을 받았지만, 골키퍼 데 헤아의 선방으로 1-0 승리를 지켜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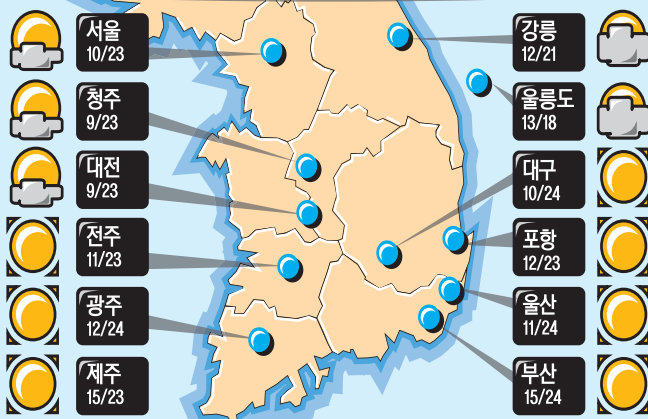
같은 조 슬로바키아는 룩셈부르크를 4-2로 꺾고 7승1무2패(승점 22) 조 2위로 본선 무대를 밟게 됐다.

이미 조 1위를 확정지은 E조 잉글랜드는 리투아니아와의 원정 10차전에서 3-0으로 승리하며 예선 전 10전 전승을 기록했다. 같은 조 스위스는 에스토니아를 1-0으로 꺾고 조 2위로 본선에 올랐다. /하희철 기자

애런 헤인즈, 프로농구 1라운드 'MVP'

프로농구 고양 오리온의 외국인 선수 애런 헤인즈(사진)가 올시즌 정규리그 1라운드를 가장 빛낸 별로 인정받았다.

KBL은 2015-2016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 1라운드 최우수선수(MVP) 투표에서 총 93표 가운데 59표를 획득한 헤인즈가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헤인즈는 1라운드 9경기에 출전해 28.2득점, 8.9리바운드, 3.7어시스트, 1.7스틸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달 13일 원주 동부전에서는 40점을 쏟아부으며 이번 시즌 한 경기 최다 득점을 기록했다. /하희철 기자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8	2	6	
			7			5		3
					2		9	4
	9			6	4	7		
2								6
		3	1	2			8	
3	1		2					
5		7			1			
	2	6	8	4				

			2		5		4	
4					6	9		
	1				9			2
3						1	2	6
2	8						5	9
6	5	1						3
1			4				6	
		4	8					7
	9		6		7			

스도쿠 정답

1	3	9	4	5	8	2	6	7
4	8	2	7	9	6	5	1	3
7	6	5	3	1	2	8	9	4
8	9	1	5	6	4	7	3	2
2	7	4	9	8	3	1	5	6
6	5	3	1	2	7	4	8	9
3	1	8	2	7	9	6	4	5
5	4	7	6	3	1	9	2	8
9	2	6	8	4	5	3	7	1

9	3	6	2	8	5	7	4	1
4	2	8	7	1	6	9	3	5
7	1	5	3	4	9	6	8	2
3	4	9	5	7	8	1	2	6
2	8	7	1	6	3	4	5	9
6	5	1	9	2	4	8	7	3
1	7	3	4	9	2	5	6	8
5	6	4	8	3	1	2	9	7
8	9	2	6	5	7	3	1	4

문제 제공=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It is a tough job

A: What are you doing?
It's lunch time.
B: I'm working on this project.
A: It is taking so long. **It is a tough job.**
B: Tell me about it.
It is a very difficult project.
A: I know. It's a headache.
Well, take it easy and good luck!

힘든 일이지요

A: 뭐 하세요?
점심 시간이에요
B: 이 프로젝트 작업을 하고 있어요.
A: 시간이 참 오래 걸리네요. 힘든 일이지요.
B: 그러게 말이에요.
아주 어려운 프로젝트에요.
A: 알아요. 골칫거리지요.
음. 쉬엄쉬엄 하시고 행운을 빌어요.

문법Point

어떤 현상, 사물, 대상에 관해 A=B의 구조를 만들려면 be동사가 필요하다.
A와 B가 같은 동격 구조라면 B에 A를 설명하는 명사를 넣으면 된다. A에 언급된 명사 대신 it을 사용할 수 있다. B앞에 형용사를 붙여 명사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다.
It은 굳이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아도 문맥상 의미가 통하게 된다. It is는 It's로 줄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Words

work on ~에 대한 작업을 하다 tough 힘든, 곤란한
headache 두통, 골칫거리

* It is taking so long. : 시간이 참 오래 걸리네요.
– take long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사용된다.
* Tell me about it. : 그러게 말이에요.
– 상대의 말에 강한 동의를 할때 사용하세요.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회사 이전에 결국 퇴사… 진로 고민입니다
면허증 취득하고 회계분야 공부해보세요

황금사과 여자 67년 8월 2일 음력 19시~21시 30분경

Q 직장이전으로 따라 가야할지 고민 상담 신청을 올려놓고 기다리는데 빨리 결정 하라고 해서 거의 7~8시간 걸리는 거리를 이사 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 못 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회사는 구인 중이고 이사는 가지 말고 어렵더라도 현 직장에 남아 있으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대중교통으로 너무 무리라서요. 지금부터 운전을 배워 차를 사서 먼 곳 이동이 바로 이뤄 질수도 없고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그리고 자격증을 따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류의 자격증이 저한테 도움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A 음력 11월부터 마음이 들뜨는 운세라 이사하고 후회 할 수도 있어 직장을 좀 더 다녀보고 이사는 계획을 세우면 했습니다.
귀하에게는 성실함이 배여 있기에 그만둔다는 상황에서 다른 방도를 찾아보시고 생일에 지살(地殺)은 중년이후 분주함을 암시하니 아무래도 면허증은 따야 할 것입니다.
월(月)에 정재(正財)라는 재물의 기운을 얻고 있으니 회계공부를 해보십시오. 회계자격증은 어려워서 못 따더라도 또는 자격증이 없더라도 경력이 있으면 직장은 어렵지 않게 구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지살은 세월이 지나서 또 다시 지방에 가서 생활해야 하는 것과 연관이 되기도 하는데 면허증을 따도 나이 먹어서 따는 것인 만큼 주행 연습도 다른 사람들 보다 더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식상(食傷:내가 생해주는 오행)의 기운으로 2016년 7월이 지나면 나름 안정을 얻으니 당분간 갈 곳을 몰라 고생스러워도 인내하십시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마다 느끼는 것은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으로 귀하는 '물이 솟아오르는 바위' 즉 샘터요 약수와 같은 형상입니다. 성실한 원류가 풍부하니 오랜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 여력을 지니고 있듯이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하고 포용력이 있는데 다만 편인(偏印:나를 생하는 오행으로 뒤늦은 공부)과 비견(比肩:대인관계)의 조합이 한 방향으로 치우쳐 성실함은 있으나 사물을 보는 융통성이 부족한 면이 있어 답답합니다.
12월 과다한 지출을 유의하고 2016년 생일지(生日支:생일)에 장생(長生:갓 태어난 아기가 성장을 하는 시각)을 놓고 새 출발 이직이 예견되는 좋은 일이 있으니 운이 좋은 쪽으로 바뀐다는 신념을 갖길 바랍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14일 (음 9월 2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남의 말에 귀 기울일 때 입니다. **60년생**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세요. **72년생** 배우자의 건강에 신경을 쓰세요. **84년생** 말 한 마디에 천냥 빚을 갚는다 하였습니다.

49년생 입조심하세요. **61년생** 큰 돈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73년생** 바람같이 왔다가 바람같이 사라질 연인입니다. **85년생** 일처리를 마무리하지 않으면 큰 후회를 하게 됩니다.

50년생 가끔씩의 휴식은 약이 됩니다. **62년생** 언제까지 지난 일만 돌아볼 생각이십니까? **74년생** 재능이 부족한 탓을 부모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86년생** 오랜 친구가 배신합니다.

51년생 너무 많은 조심성은 해가 됩니다. **63년생** 돈 때문에 망신수가 있으니 근신하세요. **75년생** 큰 뜻을 펼치겠습니다. **87년생** 뜻이 원대하니 이를 알아주는 이들의 도움으로 명예가 생깁니다.

52년생 가정에 경사가 있겠습니다. **64년생** 새로운 일을 하면 결과가 가히 창대할 것입니다. **76년생** 이상형의 직종을 만날 수 있습니다. **88년생** 이른 시간에 화해하도록 하세요.

53년생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65년생** 성실한 삶의 자세가 빛을 보는 때입니다. **77년생** 남쪽에 있는 사람은 귀인입니다. **89년생** 잃어버린 물건이 서북 방에 떨어져 있습니다.

54년생 귀인의 도움이 있습니다. **66년생**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겠습니다. **78년생** 주변의 도움으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90년생** 불의의 사고가 우려되니 경망된 행동은 삼가야겠습니다.

55년생 집안에 불길한 기운이 감돕니다. **67년생** 모든일이 어수선하고 불길합니다. **79년생** 외출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91년생**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분위기 입니다.

56년생 벌이고 있는 업종이 불황을 만났습니다. **68년생** 자본줄이 막히게 됩니다. **80년생** 동쪽부근에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92년생** 시간을 내어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세요.

57년생 방황을 하게 됩니다. **69년생** 어렵거나 잘 안 풀려도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81년생**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93년생** 능력 있는 윗사람을 만나 해결될 수 있습니다.

58년생 구설수가 따를 것이니 사람과의 교제를 잘하세요. **70년생** 이익이 같이 들어오니 도처에서 봄바람이 붑니다. **82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94년생** 이익이 되는 곳은 동쪽입니다.

59년생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오고 성취될 것입니다. **71년생** 여러 일을 하는 것은 무리일수 밖에 없습니다. **83년생** 이직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95년생** 소박한 소원을 바라는 것이 유익합니다.

가까이 할수록 좋은 면역 식품, 콩

김소형의
본초 테라피

작지만 알찬 영양 식품인 콩은 동물성 식품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다. 또한 비타민과 무기질, 항산화 성분들을 두루 갖추고 있어 성장기 아이들의 건강식으로도 좋고,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식생활 등으로 각종 질병에 취약해진 현대인들에게도 좋은 건강 식품이다.

현대인들의 경우 환경오염을 비롯해 음식을 통해 유입되는 독소의 영향에서 안전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해독 식품에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콩은 예로부터 뛰어난 해독 식품으로 활용되었는데, 감초와 함께 달여낸 '감두탕'을 천연해독제로 사용했다. 음식이나 중금속의 독소를 배출시켜주는 데 효과적이며, 술자리가 잦아 늘 숙취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의 숙취 해소를 돕는 데도 좋다.

콩에 풍부한 사포닌, 레시틴, 이소플라본, 비타민 E 같은 성분들은 모두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며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각종 노폐물을 제거해서 혈관 강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높아진 혈당과 혈압을 낮추며, 동맥경화나 뇌졸중 같은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이들 성분이 세포의 재생과 회복을 돕고 면역력을 높이기 때문에 각종 질병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

콩에 들어 있는 레시틴 성분은 뇌의 영양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 뇌 신경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레시틴 성분이므로 이 성분이 부족할 경우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며 뇌 활동이 둔화될 수 있다. 따라서 두뇌 활동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콩 섭취를 충분히 하는 것이 좋다.

갱년기 여성들에게도 콩은 이롭다. 콩에 풍부한 이소플라본 성분이 여성호르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성호르몬이 부족해져서 발생하는 다양한 갱년기 증상의 완화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갱년기에 골다공증, 안면홍조,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콩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다.

다만 콩은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흡수율을 높이려면 두부, 된장, 청국장 등 가공·발효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다.

/한의학 박사 (bonchotherapy.com)

전기차 '빅뱅' 현대차가 주도할 때

기자 수첩
정 용 기
<산업부 기자>

미국과 한국의 전기자동차 시장에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최근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애플은 테슬라의 무덤이다"라고 쓴 소리를 했다. IT(정보기술)기업 애플이 전기차 개발을 위해 테슬라가 해고한 직원들을 모두 영입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미국에서는 IT기업까지 전기차 전문 인력을 영입할 정도로 친환경차·스마트카 개발이 한창이다. 애플은 2019년 출시를 목표로 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타이탄'에 1800명의 전문 인력을 투입했다. 구글도 자율주행차에 이어 전기차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의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찾기 힘들다. 부족한 라인업 때문에 전기차에도 수입차 돌풍이 일고 있는게 현실이다.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정부가 나서서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정작 현대·기아자동차는 전기차 개발에 소극적이다.

지난해 4월 출시된 기아차 쏘울 전기차의 누적판매는 올해 8월기준 국내 1177대, 해외 4222대다. 국내 판매량은 출시 후 월마다 65대 판매한 수준이다. 현대·기아차가 국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한다고 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오히려 소비자들은 BMW i3에 관심을 표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한국지엠은 내년 전기차 볼트를 출시해 국내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대·기아차는 자사 전기차 개발 의지에 따라 전기차 '빅뱅'의 중심에 설수도 있고 강 건너 불구경 하는 꼴이 될 수도 있다. 현대·기아차가 라인업을 늘리고 중소기업과도 협업해 대중화에 발 벗고 나선다면 전기차 빅뱅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전기차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쉽사리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9월 프랑크푸르트모터쇼에 참가한 파워프라자의 예쁘자나R이 주인공이다. 예쁘자나R은 1회 충전으로 571㎞ 주행가능하다. 쏘울 전기차는 1회 충전으로 148㎞를 주행할 수 있다. 예쁘자나R의 최고속도는 198km/h, 정지에서 100km/h까지 4.6초 밖에 걸리지 않는다.

업계에서는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전기차 시대가 앞당겨졌다고 보고 있다. 전기차 개발에 사활을 건 테슬라, 애플처럼 현대·기아차도 전기차 개발에 힘써서 글로벌 시장의 맹주로 설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할 때다.

社說

낯 뜨거운 노인복지 수준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이 작년보다 악화됐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영국의 국제노인인권단체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이 12일 발표한 '2015년 세계노인복지지표'(GAWI)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복지 수준이 세계 90개국 가운데 60위로 지난해보다 10계단 미끄러졌다는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노인복지지표는 헬프에이지가 소득보장, 건강상태, 역량, 우호적 환경 등 4가지 영역 13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측정해 2013년부터 매년 발표해 온 것이다. 우리나라는 특히 소득보장 부문에서 최하위 수준인 82위로 평가됐다.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작은 아시아 국가들, 이를테면 태국(34위), 베트남(41위), 스리랑카(46위), 필리핀(50위), 키르기스스탄(51위), 중국(52위) 등이 모두 한국보다 높은 순위로 매겨졌다. 참으로 낯뜨거운 일이다.

결국 노인복지 문제는 국가의 경제력이나 소득수준보다는 '성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경제력이나 소득이 비록 낮더라도 노인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소득을 안정시키려는 의지를 정부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그런 의지와 성의가 없다면 경제력이 아무리 커져도 노인의 삶은 고달플 수밖에 없다. 노인의 높은 자살률도 낮추기 어렵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최근 '과잉복지' 해소를 명분으로 지자체가 시행중인 복지사업들을 폐지하라고 유도하고 있다. 유사·중복 사업을 없애야 한다며 노인·장수 수당을 '정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장수·노인 수당을 제공하는 곳은 90여곳에 불과하다. 그런 단체가 지급하는 장수·노인 수당이래야 금액도 크지 않을 터인데, 이마저 없애란다. 이미 바닥까지 추락한 노인복지 수준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가 노인의 복지를 개선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삶은 이제 더 추락할 곳도 없다.

부모 식습관, 자녀 비만에 영향

소비자 119

부모 모두 뚱뚱하면 자식 비만 위험 2.8배↑

부모 모두 비만하면 자녀의 비만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식습관이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비만학회가 13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연 '제6회 비만예방의 날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대중 아주대병원 교수(내분비대사내과)는 부모가 모두 비만할 때 자녀가 비만할 위험은 정상 부모의 경우보다 2.8배 높다고 밝혔다.

2009~2013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바탕으로 만 6~11세 아동 3281명과 이들의 부모를 분석한 결과 자녀의 비만 위험은 어머니가 비만할 경우 2.4배, 아버지가 비만할 경우에는 2.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식습관이 자녀의 비만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만율이 높았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지 않을 때 주로 패스트푸드처럼 고열량 저영양의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며 "식사 이후 활동량이나 활동시간이 많지 않은 저녁식사가 특히 비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대한비만학회는 제6회 비만예방의 날(11일)을 맞아 'High-five 2015 부모가 바뀌어야 아이들이 바뀐다'라는 슬로건으로 비만예방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생활 습관을 개선해 비만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인사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 전보 ▷개인정보보호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강성조
◇강릉원주대학교 ▷공학연구소장 정우영
◇전남대학교 ▷학무본부장 조영순 ▷학무본부 교학기획부처장 김태호 ▷여수캠퍼스 도서관장 김강철
◇대구평화방송 ▷문화사업팀장 옥동철 ▷편성팀장 우웅택 ▷기술팀장 방문준
◇한국대학신문 ▷부국장(취재총괄) 김영욱

부고

▲김봉환(전 삼호양행 회장)씨 별세, 김미애·혜란·혜리씨 부친상, 박재성·게어 존슨·이명재(알리안츠생명 사장)씨 장인상 = 13일, 서울 강남성모병원 14호실, 발인 15일(02-2258-5940)

▲장성수(전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거복지연대 자문위원)씨 별세, 윤혜정(평택대 도시계획학과 교수)씨 남편상 = 13일 오전, 대전건양대병원, 발인 15일 오전 9시(042-600-6660)

▲홍윤숙(시인,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씨 별세, 양윤(이화여대 교수)·지혜(전 미국 오하이오 오토바인대 교수)·주혜(화가)씨 모친상, 박재희(사업)·지미라스만(오하이오주립대 교수)·김화영(고려대 명예교수,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씨 장모상 = 12일 오전 10시 20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14일 오전, 장지 용인 천주교서울대교구 공원묘지(02-3410-6902)

▲김종구씨 별세, 김신우(구미 김신우 내과의원 원장)·성우(금감원 은행리스크업무실 팀장)씨 부친상 = 12일 오후, 대구 파티마병원 301호, 발인 14일 오전 6시(053-958-9000)

▲윤순희씨 별세, 최준석씨 부인상, 최영목 윤목(전 대법원 행정실장) 선목(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커뮤니케이션팀장 부사장) 경목(전 IBM상무) 명자 영숙 은미 경미 씨 모친상, 곽길성(전 주택은행 지점장) 박홍규(전 국정원 근무) 이범인(자영업)씨 빙모상 = 12일 오전 11시, 유성선병원 장례식장, 발인 14일 오전 8시, 장지 세종시 금남면 국곡리 선영(042-825-9494)

▲홍복순씨 별세, 김기영(소설홀딩스 감사)씨 모친상, 김행(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씨 시모상, 김지수(포스코 P&S 대리)씨 조모상 = 12일 오전 11시50분,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9호실(12일)·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13일), 발인 14일 오전 9시(010-6400-8514)